

M 45-102 | 2009. 2 |

제 102 호

---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009. 2

---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명기 전문연구원 [mkleee@krei.re.kr](mailto:mkleee@krei.re.kr) TEL 02-3299-4166 / FAX 02-962-7312  
김연수 연구원 [yunsoo@krei.re.kr](mailto:yunsoo@krei.re.kr) TEL 02-3299-4307

# 목 차

## 농업 · 농정 동향

- 3 EU의 친환경 농식품 현황과 미래연구 전망
  - 13 EU의 농식품 품질정책 주요 논점
  - 25 일본의 낙농정책 현황과 시사점
  - 37 영국의 농촌지역통계정보 현황

## 세계 농산물 수급 · 가격 동향

- 47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9.1)
- 53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9.1)
- 65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9.1)

## 세계 농업 브리핑

- 81 세계 농업 브리핑 (2009.1)

## 세계농업통계

- 93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 96 국가별 영양결핍 통계



# 농업·농정 동향

EU의 친환경 농식품 현황과 미래연구 전망

EU의 농식품 품질정책 주요 논점

일본의 낙농정책 현황과 시사점

영국의 농촌지역통계정보 현황

# EU의 친환경 농식품 현황과 미래연구 전망\*

유 찬 희

현재 친환경 농식품은 식품산업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식품 트렌드를 조망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의 발전 추이를 정리하였다. 또한 친환경 농식품이 경제·사회·환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와 미래의 주요 과제를 검토하였다.

## 1. 유럽연합 친환경 농업 연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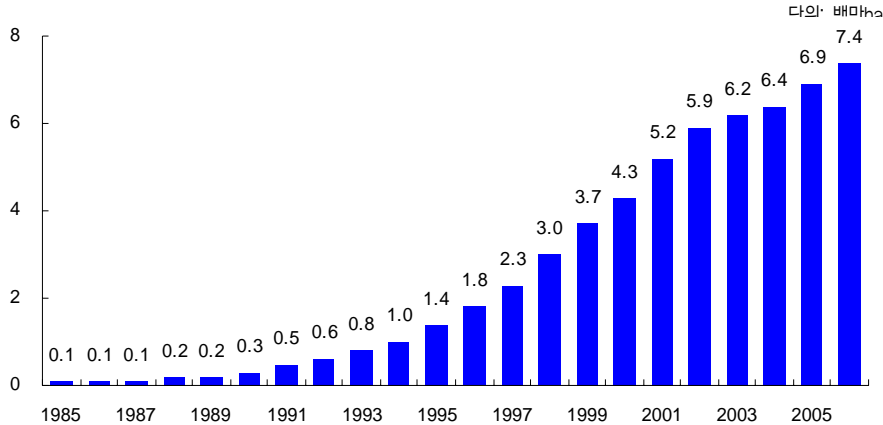
### 생산·소비 연왕

친환경 농식품은 식품산업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지만, 국가 간 성장 트렌드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1991년 유럽연합 이사회는 친환경 농업 관련 규정(Regulation (EEC) 2092/91)을 제정하였고, 이후 유럽연합의 친환경 농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2006년 유럽의 친환경 농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0% 이상 성장하여 약 14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친환경 농산물·식품시장의 규모는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가 간 성장 양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06년 현재 구 회원국들의 전체 경지의 13%에 해당하는 680만ha 이상에서 친환경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유럽연합 전역에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영농이 이루어지는 전체 경지 면적이 740만ha라는 점을 감안할 때, 친환경 농업은 아직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본 내용은 EU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chrhew@krei.re.kr, 02-3299-4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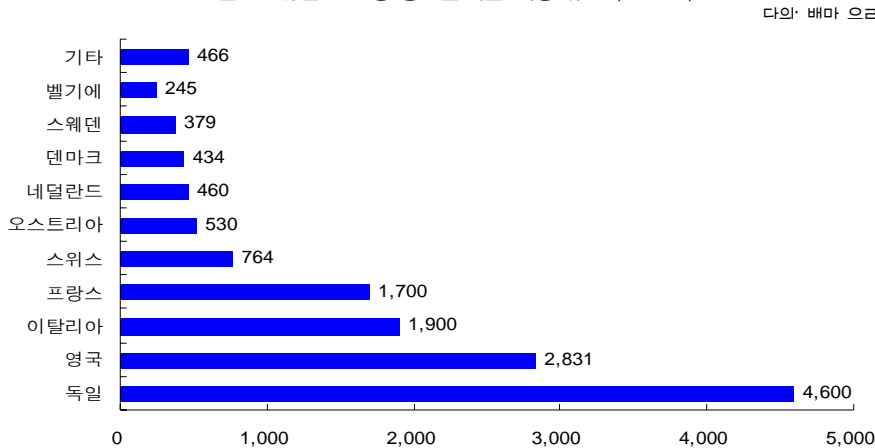
그림 1 유럽 친환경 농업 경지 면적 (1985 ~ 2006)



소비 부문에서도 국가 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친환경 농식품 소비량은 전체 소비량의 4.5~5.5%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다. 반면 신규 회원국과 가입 후보국의 친환경 농업 면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량 중 친환경 농식품의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비 부문에서도 국가 간의 차이가 두드러져, EU 신규 회원국, 가입 후보국 등의 소비 규모는 매우 작다.

그림 2 유럽 친환경 농산물식품 시장 규모 (2006년)



### 유럽연합 정책 전개와 친환경 농업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은 농촌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EU-27과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sup>1)</sup>에서는 면적기

1)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유럽공동체(EC),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협약에 따라 1994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이

준 직불제(Area Payments)를 통해 친환경 농업을 지속시키고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신규 회원국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도 지원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원 단가, 준수 조건, 요구 사항 등은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 예로 2003년 친환경 농가에 지급하는 면적기준 직불금은 36유로/ha(영국)에서 404유로/ha(그리스)까지 매우 다양했다(EU-15 평균은 185 유로/ha).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은 농촌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 도입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친환경 농업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7년 새로운 규정(Regulation (EC) 834/2007)을 도입하였다. 이 규정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라벨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9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2000년 리스본 전략(Risbon Strategy)에서 2010년까지 유럽연합을 가장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지식 기반 경제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2005년에는 새로운 목표로 성장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었다. 친환경 농식품 시스템은 이러한 리스본 전략의 목표 달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이다. 빠른 경제성장 외에도 농산물 생산, 가공, 무역, 검역, 인증, 연구, 컨설팅, 훈련 그리고 환경 관광(Eco-tourism) 등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최근 유럽의 몇몇 대학은 친환경 식품 체인관리 학위 과정을 개설하였는데, 이는 이 분야의 수요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토지, 산림, 해양 관리 원칙은 생물학적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2001년 고텐부르크 정상회담(Gothenburg Summit)<sup>2)</sup>에서 유럽연합 이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략을 채택하였고, 리스본 전략에서 제시한 고용, 경제개혁, 사회 통합이라는 환경 측면을 추가하였다. 이어 2002년에는 '제6차 중장기 환경 계획(Six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책,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과 건강보호,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폐기물 관리를 4대 중점 분야로 제시하였다. 이 계획 수립에 따라 토양 관리, 제초제 사용 관리,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침 등이 농업 부문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2006년 1월에는 '동물보호 및 복지 계획 2006~2010(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2006~2010)'을 채택하였다. 이 5개년 계획은 유럽연합 전 부문에 걸쳐 동물복지 원칙을 제시하였고, 5대 주요 과제 중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응용연구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다.<sup>3)</sup> 이러한 정책의 전개는 유럽연합의 친환경

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고도 단일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 2001년 6월 15~16일 스웨덴을 의장국으로 하여 개최된 이 회담에서는 유럽연합 확대, 고용 창출 및 확대, 작업 여건 개선,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3) 5대 과제는 1) 동물보호 및 복지의 최저기준 상향 조정, 2)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와 동물 실험 시 3R 원칙(실험동물의 대체, 사용 축소, 실험 방식 개선)의 적용, 3) 표준화된 동물복지 지표 개발, 4) 동물복지 이슈에 대한 인지도 제고, 5) 국제적인 동물복지 인식 확대와 관심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이다.

농식품 부문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해당 부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어왔다.

한편 유럽연합은 2004년 ‘친환경 농식품 계획(European Action Plan for Organic Food and Farming)’을 수립하여 친환경 농식품 공급체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sup>4)</sup> 이 계획은 친환경 농식품이 환경 외에 공중 보건, 사회 및 농촌개발, 동물복지에 주는 편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중 세부 이행과제 7번에 ‘친환경 농업 및 생산 방식 연구 강화’를 포함시켰다.

2004년 6월 집행위원회 보고서(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에서는 신기술, 정보 교환 향상, 적합한 기술의 현장 전파 등을 강조하였다. 과학·응용연구·자문기관과 생산자 간의 수직통합과 회원국 간의 수평적 연계를 통한 상승 효과 창출도 효율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 유럽연합의 친환경 농산물식품 연구 동향

1980년대까지 유럽에서 친환경 농업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민간기관들이 수행하였다. 1982년에 들어 대학에서 최초로 친환경 농업을 학과 과정에 포함시켰다. 1990년대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지원하는 최초의 프로젝트가 시행되어 연구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Framework Programme 하에서 여러 친환경 농업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별로 친환경 농업 연구를 위한 특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2002년 연방 친환경농업 계획(Federal Organic Farming Scheme)을 수립하였고, 덴마크는 1996년부터 덴마크 친환경농업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에는 3백만 유로 이상 규모의 ‘유럽 친환경 농식품 기술연계 조율 프로젝트(2004~2007년)’를 수립하였고 11개국이 참여하였다. 해당 11개국의 2005년 친환경 농식품 부문 관련 기금은 6천만 달러로 증액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민간 부문에서 친환경 농업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1990년대부터 EU 차원의 연구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4) 이 계획은 1)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한 정보 주도형 친환경 농산물식품 시장 구축, 2)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 효율성 제고, 3) 유럽연합 친환경 농업 영농 기준, 수입 및 검역 기준 강화 및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21개 세부 이행과제(친환경 농산물식품 시장 관련 3개, 공공정책 부문 4개, 생산 기준 및 검역 관련 14개)를 마련하였다([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eu-policy/action-plan\\_en](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eu-policy/action-plan_en) 참조).



표 1 유럽연합의 Framework Programme 연혁

단계	시행 기간	전체 예산 (억 유로)	농업·농촌·식품 관련 분야
4차	1994 ~ 1998	132	바이오에너지, 공동농업정책 개혁, 동물복지, 식품공학 및 생물학 분야 등
5차	1998 ~ 2002	150	삶의 질과 생활 자원 관리(식품영양, 질병 관리,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농촌지역 통합 개발 등) 에너지,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수질 관리,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재생가능 에너지와 청정에너지 등)
6차	2002 ~ 2006	175	식품안전성, 지속가능한 개발
7차	2007 ~ 2013	505	식품농어업·생물공학, 기후변화 등

주: 1) 5차, 6차 예산에서 참여국 분담분은 포함되지 않음.

2) 친환경 농업 관련 연구는 7차 Framework Programme에도 포함.

자료: 각 Framework Programme 사이트에서 재구성.

과학적 연구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식품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관련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 농산물·식품 생산 비용 절감, 단수 증대, 외연적·내재적 품질 향상, 식품안전성 강화, 환경 및 사회적 비용 감축 등이다. 이러한 연구의 기본적인 목표는 통합형 농업이나 토양 보전형 무경운 농업 등의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연구의 요구조건과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과정·대안 역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연구 결과를 농업 및 식품 부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친환경 농업은 현장의 요구 반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어서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연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유럽 국가들은 지난 20년 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 활동을 지속해 왔고,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많은 투자를 해 왔다. 그 결과 식품 시장 규모는 2006년에 140억 유로까지 성장했으며 1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할 수 있었다.

친환경 농업은 현장의 요구 반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어서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연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2. 농업·식품 부문의 미래 과제 전망

농업과 식품 공급 부문의 미래 과제와 트렌드는 세계적·지역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에 소개하는 연구 결과 또는 보고서가 연구 비전 개발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각 연구 결과 또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품·농촌농업 미래 예측」<sup>5)</sup>

「식품·농촌·농업 미래 예측」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미래 여

5) FFRAF report: foresighting food, rural and agri-futures, 2007.2.

건을 전망하였다. ‘기후 충격(Climatic Shock)’과 ‘에너지 위기(Energy Crisis)’ 시나리오 전망 결과, 유럽의 농업은 자원의 불충분한 이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취약성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경우 기존의 관행농업 시스템은 상당 부분 제약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식품 위기(Food Crisis)’ 시나리오에 따르면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품·공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국민지향적 연구(Citizen-oriented Research)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연과의 조화(cooperation with nature)’ 시나리오는 과학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모든 수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을 전망하였다.

### 「새천년 생태계 평가」<sup>6)</sup>

UN 기구, 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 시민운동기구 그리고 개인·공공 기부자들이 제안한 「새천년 생태계 평가」는 ‘식량, 신선한 물, 목재, 섬유, 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지구 생태계 다양성의 실질적이고 비가역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즉, 현재와 같은 발전 방식은 ‘미래 세대가 생태계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정책, 제도, 영농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와서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생태계 소모를 반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농업과 식품 공급 부문의 미래 과제와 트렌드는 세계적·지역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관점은 연구 비전과도 관계가 있다.

### 「발전을 위한 농업 지식·과학·기술 국제 평가」<sup>7)</sup>

이 보고서는 농업 지식·과학·기술이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발전과 지속가능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새로운 우선순위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면 농업 지식·과학·기술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지하고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며, 다양한 사회·생태적 맥락 안에서 농업 시스템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기관을 새롭게 정비하여 농업 지식·과학·기술의 발전과 전파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불어 생산자와 생태계 관리자로서의 농업 조직(Farming Communities), 농가, 농업인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려면 가치 사슬 내의 참여자들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변화시켜 외부효과를 가능한 한 내부화(internalize)시켜야 한다.”

6) Millennium Ecosystems Assessment, 자세한 내용은 <http://www.millenniumassessment.org> 참조.

7)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gricultural Knowledge,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자세한 내용은 <http://www.agassessment.org/> 참조.

### 3. 세계적 식품 트렌드 변화와 친환경 농식품의 과제

‘새천년 생태계 평가’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생태계 서비스(특히 식량, 목재, 섬유)를 증가시키면 시장가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서비스가 감소된다고 주장했다. 전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서비스의 60%가 소모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영농 방식을 변화시켜 생태계 서비스의 소모를 중지시키거나 회복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요과

영농 방식을 변화시켜 생태계 서비스의 소모를 중지시키거나 회복시키는 것, 즉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환경과 생태계 측면에 편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친환경 농업의 강점이고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업·환경 정책이 친환경 농업을 지지하는 것도 환경적 편익의 중요성에 근거하고 있다. OECD와 EU 국가들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관리되는 토지 비율을 그 국가가 얼마나 ‘환경친화적’인지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지금까지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 온 덕분에 현재는 서로 다른 영농 체계가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수 있다.

#### 오염 저감

친환경 영농 방식으로 경작하는 농지의 질소 침전율(Nitrogen Leaching Rates)은 관행 영농 방식에 비해 35~65%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토양 표면과 내부, 그리고 표층수에서 잔류 제초제·살충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친환경 농업을 도입하면서 이러한 투입재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 30여 년간 실시한 현장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영농 방식으로 경작한 농지의 분사형 제초제 성분 활성분(Active Matter)은 통합적 영농<sup>8)</sup>이나 관행적 영농 방식으로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1/10 수준으로 줄어든다.

#### 토양의 생물학적·물리학적 속성 개선

여러 국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관리한 경지는 유기물질 함량, 바이오매스, 효소 함량 등이 많고 안정성이 높으며 투수성이 좋고 바람과 물에 의해 침식되는 정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땅을 얇게 갈고(Shallow Ploughing)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면 무경운을 실시한 것만큼의 토양 손실 방지 및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수평적·수직적 통합을 통해 생산 체계를 집약화하고 환경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수평적 통합은 지원, 경종작물, 축산, 임업, 수산업 등 생산 체계 요소 간의 관리 효율화를 의미하고, 수직적 통합은 생산-가공-유통-마케팅 전략 간의 통합적 관리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전체 과정에 적절한 기술의 이전과 수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 생물학적 다양성 유지

생물학적 다양성은 친환경 농업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영농 과정에서 다양성은 다양한 영농 활동, 다양한 목초류, 지역 특성에 맞는 윤작 체계, 경종 체계와 어울리는 축산업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잘 어우러지면 그 지역의 동식물군을 다양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생태계 기능을 안정화시킨다.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면 비료, 기계를 이용한 제초, 질병 및 병충해 관리 등을 줄여서 생물학적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토양 질 관리(충분한 퇴비 공급 등), 경운 방식(무경운 등), 윤작, 간작 등으로 병충해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농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저투입 농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유전적 다양성이 적응의 기본 요소라고 보고 있고, 이런 점에서 안정적인 식품 공급을 위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다양한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기에 상황에 맞는 보전 방식과 농가 단위의 종자 관리가 유전자 재조합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친환경 농업 육종가들이 매우 작은 규모의 개량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어 효과가 높지 않아 정치적·과학적·경제적 지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농업 부문이 영향을 주고 받는 환경 및 생태계 요소 중 생물학적 다양성, 기후 변화, 수자원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력 증진

얇게 갈기, 가축분뇨 재활용, 퇴비화 기술, 녹비·간작작물 등 활용, 식림업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토양 유실을 상당 수준 줄이고, 부식토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연간 40~2,000kg/ha의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질소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콩과 식물과 유기질 질소를 이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곡물, 초종(grass-clover), 우유 같은 품목의 경우 유기농업을 도입함으로써 단위 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감자 등 상대적으로 단위수확이 낮은 품목을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단위 생산량당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직 많은 편이다.

### 수자원 부족 완화

친환경 농업을 도입하면 비의 토양 흡수가 개선되고 수자원 보유율(Retention Rate)이 높아져서 보다 지속적인 수자원 사용이 가능해진다. 펜실베이니아주의 Rodale 지역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기후가 건조할 때 친환경 농업 방식으로 재배한 옥수수과 콩의 단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에티오피아 Tigray 지방의 대규모

경지에서 수천 농가가 참여하여 실시한 시험 결과에서도 퇴비와 친환경 농업 방식을 도입할 경우 단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역연료 사용 경감

미국 농업 부문은 사용하는 에너지의 36%를 무기질 비료와 제초제 제조에 투입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 부문은 이러한 투입재를 사용하지 않아 에너지 사용량이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식물성 유기질을 발효시켜 만드는 농업 부산물 디젤(agro-diesel)을 기계류 및 수송용 유류 대신 사용하면 추가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친환경 농업은 순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사회·경제적 요과

### 농가 경제에 기여

친환경 농업에서 얻을 수 있는 평균 소득은 표준적인 관행 농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의 80~120% 수준이다. 다양한 품목을 함께 재배하는 경우 가장 높은 수익을 얻기 쉬운 반면, 친환경 양돈이나 집약적 축산을 하는 경우는 수익성이 오히려 낮은 편이다. 축산 부문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이유는 사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축사 구조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관행 농업의 요소와 비슷하다. 단수 차이, 생산자 수취 가격, 직불금 수령액, 노동 및 가변 비용 등이 친환경 농업과 관행 농업의 수익성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들이다.

### 사회적 편익 증진

친환경 농업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는 농가당 고용 인력 규모가 더 큰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화훼 등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농가와 소매·가공을 병행하는 농가에서 종종 나타난다.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친환경 농업이 생산자와 종사자의 직업 만족도와 행복도를 높여준다는 증거도 있다. 또한 화학물질에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되어 건강에 이로울 수도 있으나, 노동량이 많아 이러한 이점이 상쇄될 수도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인들은 보다 젊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보다 다양한 기술 및 지식 이전 활동(교육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농식품 부문은 여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친환경 농식품은 생산량 감소를 만회할 정도로 시장 가격이 높고, EU 정책에 의해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생산자 수입이 관행 농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친환경 농업은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친환경 농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관행 농업과 비슷하다. 그러나 사회적 효과 측면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인다.

화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 더욱이 직판, 가공 및 농촌 관광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과도 연계할 수 있다.

친환경 농업 관련 정책은 농촌 지역 혁신에 촉매 작용을 할 수 있다. 친환경 농업이 농촌 지역 내 삶의 질 향상과 다각화, 지역 특성 강화, 경관 및 문화유산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농촌 관광과의 연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식품 품질과 안전성 계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산물·식품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건강, 맛있음, 고유함, 지역성, 다양성, 신선함, 적은 가공, 제조제 사용 안 함 등). 친환경 농식품의 이러한 속성은 생산 과정과 밀접한 과정을 가지며 동물 복지 등의 개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 농식품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 친환경 농산물은 제초제나 질산비료와 같이 가치를 감모시키는 성분을 적게 함유하고 있다.
- 병원성 미생물(곰팡이, 대장균 등) 문제에 있어 친환경 농식품은 관행 농산물·식품 만큼 안전하다.
- 친환경 농식품은 비타민 C 함량이 더욱 많은 편이다.
- 친환경 농식품은 대체로 맛이 더 좋다.
- 친환경 농식품은 대체로 단백질 함량이 낮다.

친환경 농업 관련 정책은 농촌 지역 혁신에 있어 촉매 작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 참고자료

발전을 위한 농업 지식·과학·기술 국제 평가 홈페이지(<http://www.agassessment.org/>)  
 세계도시라이브러리 홈페이지 (<http://www.makehocity.com>)  
 세계유기농운동연맹(IFOAM) 홈페이지 (<http://www.ifoam.org>)  
 새천년 생태계 평가 홈페이지 (<http://www.millenniumassessment.org>)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kemco.or.kr/>)  
 유럽연합집행위원회, FP7 in Brief, 2007.  
 FFRAF report: foresighting food, rural and agri-futures, 2007.2.  
 FiBL and IFOAM EU Group, Organic Action Plans-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2005.  
 GlobalGAP 홈페이지 (<http://www.globalgap.eu>)  
 IFOAM EU Group and ISOFAR, Vision for an Organic Food and Farming Research Agenda to 2025, 2008.7.  
 Meier-Ploeger A., Quality of organic Food: Perception and Criteria. Elm Farm Research Centre, Bulletin No. 60, 14 pp, 2002.

# EU의 농식품 품질정책 주요 논점\*

최정남

지난 호에서 ‘농산품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EU의 고민’이란 제목 하에 농업생산기반요건, 마케팅 기준을 둘러싼 논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EU의 4대 특수 품질규정과 민간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EU 품질정책의 주요논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4대 특수 품질 규정

EU는 지리적 표시, 유기농업, 전통 특산품, 최변방 지역 농식품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 네 가지의 특수한 품질 규정을 도입하였다.

EU는 지리적 표시, 유기농업, 전통 특산품, 최변방 지역 농식품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 네 가지의 특별한 품질규정을 도입하였다. 이 규정들이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특정 원산지 혹은 특수한 영농방법을 통해 우수한 품질을 지닌 농식품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각 표시가 해당 규정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인증업체들에 의해 감독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품 생산 농업인들이 그 명칭을 모방한 제품들에 의해 피해입지 않도록 보호될 수 있으며, 그들이 쏟은 정성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리적 표시, 유기농업, 전통 특산품 보호, 변방지역 농식품과 관련된 네 가지 규정들은 특수한 품질을 지닌 상품들을 요구하는 시장수요에 부응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녹서를 통해 각 규정들이 갖는 상이한 측면과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검토하고자 하였다.

\* 본 내용은 EU 집행위원회가 제작, 배포한 농식품 품질에 대한 녹서(Green Paper on Agricultural Product Quality)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남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choijn@krei.re.kr, 02-3299-4319)

##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지역으로 인해 남다른 특성이나 명성을 갖게 된 농산물이나 식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칭이다. 오늘날 우수한 농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소비자들은 특별한 지리적 지역에서 나온 인증 생산물들을 원하며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려고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리적 표시는 농민들과 생산자들에 수익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 더 나아가 생산자로 하여금 유럽 유산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고품질의 농식품을 생산한다는 자긍심과 만족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까닭에 EU는 농식품과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만들고 우수한 농식품의 명칭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리적 표시’에는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와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명칭이 PDO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의 모든 단계가 원칙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농식품의 특성 역시 본질적 혹은 전적으로 그 지역에 기원해야 한다. 어떤 명칭이 PGI의 자격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생산과정의 한 단계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과 연관된 특별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U의 지리적 표시 시스템은 제3국의 생산자들도 이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시스템이다.

###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시행

**보호:**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되며, 이에 따라 원제품(Original Product)의 생산자들과 원제품을 매매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은 등록된 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등록된 명칭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like’, ‘type’, ‘kind’ 등의 용어를 수반하여 사용되어서도 안 되며, 그 명칭에 대한 암시나 그 명칭의 번역이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지리적 표시의 등록과 보호로 인해, 지리적 표시가 담긴 동식물의 품종명 및 상표에서 그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거나 앞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사용자들과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일반적인 명칭이 지리적 표시로 등록될 수 없으며 자신들은 그 명칭을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법규들이 있으며, EU 법원은 명칭의 일반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규명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호된 지리적 표시를 지닌 제품들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U는 등록 명칭과 더불어 별도의 심벌을 도입했다.

**시행:** 농업인들이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인증기관이 이를 검사한다. EU의 각 회원국들은 와인과 증류주의 경우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지역으로 인해 남다른 특성이나 명성을 갖게 된 농산물이나 식자재에 사용될 수 있는 명칭이다.



특별규정에 의거하여, 기타 제품들의 경우 EU 식품법규에 의거하여 도소매로 유통되는 제품들에 등록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행정적으로 감독한다.

지리적 표시에 대한 공공기관의 행정적 감독은 상표보호제도와는 다르다. 상표는 사법(private law)과 관련된 것으로 상표소유권자는 필요할 경우 사법적 소송을 통해 상표를 보호할 수 있다.

### 논점 1

- 지리적 표시의 사용자들과 그 명칭의 다른 사용자 (혹은 잠재적인 사용자)의 권리를 규정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가?
- 어떤 명칭이 일반적인 명칭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 지리적 표시제도의 보호범위, 시행방도, 포괄되는 농식품 종류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 상표보호제와 같은 대안적 방식들이 더욱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아닌가?

## 지리적 표시 등록 기준

와인, 알콜 음료, 농산물, 식품에서 약 3,000개의 지리적 표시들이 이미 등록되었거나, 현재 검토 중인 상태이다.

현재 와인, 알콜 음료, 농산물, 식품에서 전체적으로 약 3000개의 지리적 표시들이 이미 등록되었거나, 현재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인 대다수의 신청서들은 주로 지방이나 지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산품들에 대한 것이다. 일부 가공품의 경우 원자재의 생산지역이 아닌 가공방법과 생산품의 명칭이 지리적 지역과 연관되어 있다. 이 경우 상품의 원자재는 그 지역 외부로부터 들여온 것일 수도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한편 많은 제품들의 품질이나 명칭이 원산지 또는 지역 생산자들의 노하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성 기준이 제품의 품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도 있다. 지방 경제에 대한 기여, 생산방식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품의 경제적 수익성 및 수출 잠재력, 가공식품의 모든 원료가 가공지역 주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요구 등도 마찬가지이다.

### 논점 2

- 지리적 표시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들이 도입되어야 하는가? 특히 지리적 표시 보호제의 기준의 경우 제품과 지리적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하기 위해 보다 엄격해져야 하는가?
- 원산지와 연계성에 상관없이 지속가능성 및 그 외 다른 기준들 또한 별도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 경우 장단점은 무엇인가?

### 제3국에서의 EU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몇몇 지리적 표시 제품은 최고급 시장에서 상당한 수출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소비자들이 일류제품을 고대하고 있는 곳에서 EU 수출업자들은 그들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지리적 표시제품들은 모방과 찬탈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EU 역외의 몇몇 국가들은 지리적 표시 제품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며, 일부 국가들은 상표법, 라벨링법, 또는 각종 법규들을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EU 수출업자들이 역외지역에서도 일류제품들을 자유로이 유통시키고, 그들의 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EU의 지리적 표시제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리적 표시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 EU의 경우 양자 간 협정체결을 통해서도 이를 적극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특히 와인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EU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양자 간 협의를 통해 다자간 (WTO) 협상에서 보다 발전된 수준으로 지리적 표시제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EU의 지리적 표시제품 목록 전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고 있는 3000여개의 상품들이 주로 지방이나 지역차원에서 팔리는 제품들이므로 등록된 모든 명칭들을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는 검토해 봐야할 사안이다.

지리적 표시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보호된다. EU는 양자 간 협정 체결을 통해서도 이를 적극 보호하고자 했는데 특히 와인분야에 집중해 왔다.

#### 논점 3

- EU 역외 국가에서 보호받으려 할 때 지리적 표시 사용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은 무엇인가? 제3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해 EU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첨가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가공품 및 조제품의 라벨에는 보통 주요 구성성분들이 표기된다. 어떤 첨가물이 PDO나 PGI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에, 가공품 생산자가 그 등록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이 첨가물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첨가물 생산자는 그 가공품이 첨가물의 등록 명칭을 사용하여 유통되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다. 소비자 정보충적 (General Rules on Consumer Information)에는 소비자들을 오도하지 않고 이러한 구성성분들을 알릴 방법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받는 첨가물이 제품의 판매명칭에 사용되었다면 성분목록에 그 첨가물의 비중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 논점 4

- 가공품이나 조제식품에 사용된 PGI/PDO 첨가물을 광고하는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가?

## 원료의 원산지과 지리적 표시

PGI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의 한 단계만이라도 그 명칭이 생기게 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PGI(그리고 몇몇 PDOs) 가공품들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된 원료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어떤 소비자들은 그 원료가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기를 기대할 수 있고, 반면에 다른 소비자들은 지리적 영역 내의 전문적인 생산자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최고의 품질을 지닌 원료를 선택했을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 논점 5

- 원료가 지리적 표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경우 원료의 원산지를 밝혀야 하는가? 그럴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지리적 표시제의 통일 및 간소화

현재 EU에는 농업 분야의 지리적 표시 등록 및 보호와 관련해 세 종류의 시스템이 있는데 농산물과 식자재에 대한 것, 증류주에 대한 것, 와인에 대한 것이다.

현재 EU에서는 농업분야의 지리적 표시 등록 및 보호와 관련해 세 종류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하나는 농산물과 식자재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증류주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 다른 하나는 와인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형성된 이유는 해당 제품군들이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에 따라 보호 시스템 역시 각 제품군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시스템은 보호의 종류, 정의, 행정적 집행, 상표와의 관계, 애매한 명칭들의 공존에 대한 규칙, 등록, 제품명세서 역할 등의 측면에서는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각 제품군의 특성으로 인해 절차상 및 기타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와인과 농산물 및 식자재의 경우는 PDO 또는 PGI로 등록될 수 있으나, 증류주의 경우 PGI로만 등록될 수 있다.

### 논점 6

-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세 종류의 시스템이 간소화, 통일화될 필요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세 종류의 시스템을 각각 독립적으로 지속,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 전통특산품 보증 (Traditional Specialities Guaranteed)

‘전통특산품 보증(TSGs)’은 전통적인 원료 또는 전통적 생산방식을 사용하여 생산하거나, 전통적인 성분을 함유한 농산물 또는 식자재에 사용될 수 있는 명칭이다. 이 명칭이 사용되는 제품에는 식용으로 생산된 농산물이나 다양한 식품들 (맥

주, 과자류, 파스타, 인스턴트식품, 수프, 아이스크림 및 셔벗(sherbet)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992년 이 규정이 도입된 이래, 단 20건 만이 TSG로 등록되었고, 현재 약 30건의 제품들이 TSG 등록 대기 중이다. 대기 중인 제품 전체가 승인된다 하더라도 전체 등록제품의 수는 매우 적다. 또한 등록명칭 중 경제적 의미를 지닌 경우도 거의 없다.

대부분의 TSG 등록은 제품의 전통적인 형식을 규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비전통적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들도 이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TSG 등록 신청자들 역시 대부분 제품의 명칭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without reserving) 등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명칭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TSG로만 등록할 경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TSG 등록과 동시에 등록 명칭이 자동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제품에 ‘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또는 그 약자인 ‘TSG’, 혹은 EU 로고가 부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 명칭만으로도 특별한 제품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간 대부분의 TSG 등록은 전통적 산물인지를 인증하기만 하고 그 명칭을 보호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관련된 검증과정을 받아들이고, 통과한다면 어떤 생산자들도 이 규정 하에서 전통적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가 제출된 국가의 외부에서 생산자들이 ‘전통특산품 보증제도’의 규정들을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논점 7**

- 전통특산품 보증제도의 저조한 이용실적을 볼 때, 전통특산품을 보다 잘 규정하고, 보증제도를 더욱 촉진시킬 더 나은 방법이 없겠는가?

‘전통특산품 보증(TSGs)’은 전통적인 원료 또는 전통적 생산방식을 사용하여 생산하거나, 전통적인 성분을 함유한 농산물 또는 식자재에 사용될 수 있는 명칭이다.

**유기농업**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최근 꾸준히 증가해 공급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농산물이 표기된 방식대로 생산되었음을 보증하는 유기농 규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유기농 식품의 프리미엄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인증기관의 감독이 필수적이다.

현재 EU 유기농 식품 시장은 국가별로 분할되어 있다. EU내의 모든 인증기관들이 EU의 유기농 규정을 통일적으로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의 슈퍼마켓들은 자기 나라의 인증기관들로부터 인증 받은 상품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EU는 현재의 유기농 표기에 대한 신뢰와 명성을 왜곡, 손상시키지 않은 채 유기농 식품의 EU 역내 시장을 성과적으로 창출해

유기농으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최근 꾸준히 증가해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EU 유기농 식품 시장은 국가별로 분할되어 있다.

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991년부터 EU 생산자 및 가공업자는 물론 제3국의 수출업자들이 유기농산물을 EU에 출하하고자 할 경우에 EU 유기농 관련 법규가 적용되어 왔다. EU의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가 승인한 국제 유기농 규범과 거의 흡사한데, 이로 인해 제3국에 수출되는 EU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과정 역시 간소화되었다. EU의 유기농업에 대한 전략적, 정치적 목표는 2004년에 합의되었는 바 이는 ‘유기농식품 및 유기농업을 위한 EU사업계획(Action Plan)’에 잘 소개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 유기농업과 관련된 법률적 성과는 2007년 6월에 채택된 ‘신 유기농 규정’인데 이번 녹서에서는 가장 최근에 채택된 이 법률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EU 유기농산물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 논점 8

- 유기농산물의 EU 단일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는 무엇인가? 유기농산물의 EU 단일시장이 더 잘 작동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외변방 지역(the outermost regions)을 위한 고품질 정책 (Quality Products Policy)

EU 최변방 지역의 농업을 위한 특별정책과 관련된 법규는 최변방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고품질의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라픽 심벌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U 최변방 지역의 농업을 위한 특별정책과 관련된 법규는 최변방 지역의 특색있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라픽 심벌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관청이 승인한 기관이 이 심벌의 사용 문제를 감독하되, 심벌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 조건들은 해당 상인조직들이 자체로 개발한다. 심벌이 사용될 수 있는 농산물은 EU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해진, 혹은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국제적 기준에 의거하여 정해진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최변방 지역의 제품들에 대한 특별 조건들은 상인조직들의 제안에 따라 더 채택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스페인과 프랑스의 변방지역에 있는 생산자들이 이를 활용해 왔다(예: 과들루프(guadeloupe), 마르티니크 그리고 레위니옹(La Reunion)에서 생산된 파인애플, 바나나, 멜론 및 기타 이국적 과일류, 카라리아 섬에서 생산된 와인, 화훼류를 비롯한 바나나, 토마토, 오이 및 기타 과일과 채소).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들은 생산자들이 생산물의 품질조건에 주의하도록 자극하고, 유럽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불리한, 그리고 열악한 지리적, 기상적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들의 농산물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라픽 심벌의 도입 및 이와 연관된 생산기준들의 준수를 통해 농업이 지역 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자는 것이다.

**논점 9**

- 유럽연합 최변방 지역 생산물에 대한 그래픽 심벌의 사용으로 인해 해당지역 생산물의 인지도가 얼마나 상승되었는가?
- 최변방 지역의 고품질 농산물을 증대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는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기타 EU 규정**

이상과 같이 지리적 원산지, 전통적 제품, 특정지역의 생산물 그리고 유기농을 대상으로 하는 4대 품질규정들이 EU 농식품 품질정책의 주축이다. 그 외에도 높은 경관가치를 지닌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동물복지, EU산임을 나타내는 라벨 그리고 가공품에 대한 친환경라벨(Ecolabel)의 확장 등 EU 규정화를 기다리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

어떠한 EU차원의 품질규정이든지 국가나 민간 혹은 다른 규정들을 통해서도 적절하게 충족될 수 없는 EU차원의 정책적 수요와 부합해야 한다. 공동농업정책의 건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영향, 생물다양성 보존, 물 사용 문제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집행위원회는 가능한 새로운 규정들과 관련해 심도 깊은 법적규정이 더 필요한 지 혹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지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법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복잡한 배경을 지닌 경우에는 의무적 규정들이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규정들로도 충분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 운영자가 시스템을 개발, 발전시키게 할 수도 있다. 보다 더 나은 조정방안을 모색하되, 농민들과 회원국 관청 및 집행위원회, 그리고 그 외의 이해당사자들이 안게 될 행정적 부담문제 역시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논점 10**

- 현재의 시스템 및 규정들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는가? 그리고 반드시 EU 차원에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슈들이 있는가?
- 집행위원회가 특정한 경우 (예: 복잡한 법적 학문적 배경을 가진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등)에 의무적인 규정들을 마련해야 하는가?
- 만약 그럴 경우, 이해당사자 및 공공관청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

**2. 민간인증제도 운영 및 영향**

농식품 품질 인증과 관련한 민간 및 국가의 각종 시스템이 최근 부쩍 증가하였

다. 이러한 인증제도의 성장을 바탕으로 소매상들은 소비자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특수한 품질을 지닌 상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기된 내용들을 믿을 수 있게 되며, 농업생산자들은 소비자들과 제품의 품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식품 품질인증과 관련된 EU의 규정은 의무적 생산기준 준수부터 환경보호, 동물복지, 관능적 (감각수용적) 특성, 노동자 복지, 공정무역, 기후변화 문제, 인종적, 종교적 혹은 문화적 문제에 대한 고려, 영농방식, 원산지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마련되어 있다.

식품산업 및 유통업자들 또한 품질인증을 통해 제품의 품질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인증을 통해 농업생산자들이 올바른 기준을 준수했으며, 소매업자의 명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규정과 라벨의 급증으로 인해 규정 요구사항에 대한 투명성, 주장에 대한 신뢰, 공정한 거래 관계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녹서를 통해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민간인증제도들의 운영 및 이 인증제도들이 EU 역내 외에 농업생산자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 정책목표 달성과 인증제도의 요과

대형 소매업자들은 인증제도를 통해 특정 제품조건과 납품조건이 준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형 소매업자들은 품질인증을 통해 특정 제품조건과 납품조건이 준수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규정들이 생겨났는데 이는 구매 제품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소매업자들이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다수 소비자들의 주요한 관심사는 위생, 안전, 그리고 가격이다. 고품질 제품 및 특별한 영농방식에 의해 생산된 상품들을 찾는 소비자들과 관련하여 그간 발생한 변화와 혁신의 주요한 동인은 다음과 같다.

- 농업과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고, 지속가능한 영농시스템 하에서 생산된 지역상품 및 계절상품을 선호하고픈 소비자들의 욕망
- 기후변화 대비, 물, 토양 등의 자연자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 생물다양성 유지 등의 환경적인 관심
- 식품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요구
- 사회적 관심사: 공정무역 상품이란 라벨이 좋은 예임. 이는 생산자와 노동자를 도와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을 경제적 자립과 안전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에 기초한 것임.
- 동물복지: 동물보호단체 및 생산자들이 소매업자 및 학자들과의 협력하에 장려하고 있는 민간 규정으로, 동물복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요구되는 최소생산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책적 동인들은 그간 각종 인증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배경을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증제도의 창출

과 이용은 시장 수요의 존재여부에 달려 있다.

현재의 법적 요구조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해주는 규정들은 ‘기본원칙’으로 불린다. 이 규정들은 세세한 품질요건들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운영자들이 세부규칙(예: 기록의 의무)을 만드는 토대가 되고 있다. 더불어 여기에는 규정준수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다뤄지고 있다. 이 규정들은 제품이 위생 등의 중요한 기준들을 준수하여 생산된, 즉 ‘인증된’ 또는 ‘보증된’ 제품임을 알리는데 활용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종종 업체들 간에도 사용되는데, 이는 공급된 제품이 주요한 기준이나 요구여건들을 준수했음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규정들이 업체의 명성을 보호하고, 책임소송의 가능성이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디자인 될 수도 있다. 현재는 각 제품들에서 이와 같은 기본원칙들이 준수되고 있는 사실이 최종소비자에게까지 알려지지는 않고 있다.

**논점 11**

- 고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제품의 특성 및 영농방법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켜줘야 하는가?
- 기본적인 생산기준을 준수했음을 보증하는 인증제도에 의해 오도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 인증제도에 참가함으로써 농업생산자나 다른 식품생산업자들이 감당해야하는 비용과 편익은 어느 정도인가? 생산자 조직의 활발한 관여가 더욱 더 장려되어야 하는가?

**양우 전망**

품질인증이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의 사용을 규제할 법규 역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분야에 걸쳐있다. 한편 인증제도는 몇몇 제약을 갖고 있다. 첫째, 역내 시장에서만 통용되는 규칙이라는 점이다. 인증서비스는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 정보 및 라벨링 요건과 관련된 제약으로 소비자들이 라벨의 이면에 놓인 배경들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인증제도에 의해 포괄되는 범위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해 인증관련 법규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규정 운영자들이 규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이 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확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고려중이다.

인증제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의 사용을 규제할 법규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정책 분야에 걸쳐있다.

**논점 12**

- 인증제도의 통일적인 발전을 꾀하는데 있어 EU 가이드라인은 충분한가?
- 어떠한 기준들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 부담 및 비용 절감문제

인증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은 크게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비용에는 회비, 제3자의 감독과 인증비용 등이 해당되며, 간접비용은 인증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예: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비용)과 그 외에 부가적인 생산비용을 의미한다. 한 가지 이상의 인증제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담은 소규모 농가일 경우에 더 더욱 크다. 그러나 만약 농가가 특별한 인증제도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의 제품들은 특정 시장의 판로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 논점 13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품질 인증제도에 동반되는 행정적 비용과 부담은 어떻게 감소될 수 있을 것인가?

## 국제적 차원

국제교역에서 인증제도는 특정한 품질 특성을 지닌 제품들을 알리고, 유통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

국제교역에서 인증제도는 특정한 품질 특성을 지닌 제품들을 알리고, 유통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인증제도가 민간(농가, 생산자, 식품산업자, 소매업자 등)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관여할 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민간 인증제도는 EU시장에 출하하는 개발도상국의 농가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농가들이 인증의 요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으나 EU 소매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인증제도의 승인을 받아내게 되면 EU시장에서 훨씬 나은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도 개발도상국에는 조방적인 영농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므로 생산 방식에 대한 인증을 통해 동물복지 친화적 상품교역 분야에서 큰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다.

### 논점 14

- 유럽연합의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시장에서 유럽의 고품질 농산물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인증제도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것인가?
- 특별한 소매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민간인증제도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을 어떻게 하면 유럽연합이 시장에 쉽게 접근시킬 수 있을까?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농식품 품질정책에 대한 EU의 현황과 각 주제별 논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녹서를 통해 EU 전역에서 광범위한 토론이 촉발되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다면 정책개발과정이 투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책 실행력 또한 강해지게 될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위에서 제시된 논점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

견을 토대로 자체 피드백을 통해 오는 5월에 정책의견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향후 EU 농식품 품질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on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product standard, farming requirements and quality schemes』, Brussels, 2008. [http://ec.europa.eu/agriculture/quality/policy/consultation/greenpaper\\_en.pdf](http://ec.europa.eu/agriculture/quality/policy/consultation/greenpaper_en.pdf)

# 일본의 낙농정책 현황과 시사점\*

허 덕

## 1. 머리말

낙농산업은 사료가격 상승, 원유수급 불균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낙농경영안정정책과 더불어 사료관련 정책, 생산성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낙농관련정책, 우유 유통관련 정책들을 살펴본다.

2006년 말부터 배합사료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료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국제 사료 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상승, 곡물 수출국들의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한 곡물 확보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젓소의 사료원인 알팔파, 면실 등 조사료 가격도 2008년 9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보다 각각 61%, 103% 상승하였으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TMR) 가격 또한 동기대비 약 32% 상승하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유(原乳) 생산비의 증감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경우 가격을 조정하게 되어 있다. 이 제도에 따라 2008년 8월 16일자로 유대(乳代)를 20.5% 인상하여 낙농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료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부산물 수입원인 초유폐기 암송아지, 노폐우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수지의 개선 역시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우리 낙농산업은 사료가격 상승, 원유수급 불균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낙농경영안정정책과 더불어 사료관련 정책, 생산성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낙농관련정책, 우유 유통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 본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에 게재된 축산정책 자료 중 낙농정책을 참고하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huhduk@krei.re.kr, 02-3299-4261)

## 2. 일본의 낙농정책

일본은 낙농경영안정대책을 매우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 중 경영안정정책으로는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대책과 도부현 낙농긴급 경영강화대책, 대가축 특별지원 자금융통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사료수급정책으로는 낙농 사료기반 확대 추진사업, 에코 피드 등 이용 촉진사업, 청예 옥수수 생산 긴급확대사업, 사료증산 수탁 시스템 확대 사업, 사료용 쌀 도입 정착화 사업, 미활용 자원 사료화 촉진사업, 조사료 자급률 향상 종합 대책 사업, 축산 생산성 향상 촉진 사업, 가축사료 특별지원 자금융통 사업, 사료가격 상승에 대한 이해도 증진 사업 등 매우 다양한 사업이 도입되어 있다. 이 밖에도 생산성향상 정책과 유통개선정책 그리고 우유소비확대정책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 경영 안정 정책

표 1 일본의 경영 안정 정책

사업명	사업목적	실시주체	소요액수	담당부서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 대책	가공원료유 가격하락시 생산자 적립금으로 일부 보전함을 통해 원유의 재생산 확보 및 우유 및 유제품의 안정공급에 기여	지정생유 생산자 단체 등	6,000 (백만엔)	축산기획과
도부현 낙농긴급 경영강화대책	수익성이 큰 폭으로 저하할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획 실시와 낙농가 계획을 지원	민간 단체	9,184 (백만엔)	축산기획과
대가축 특별지원 자금융통	경영 안정 및 후계자에게의 경영계승을 원활하게 추진	(사)중앙 축산회	40,000 (백만엔)	축산기획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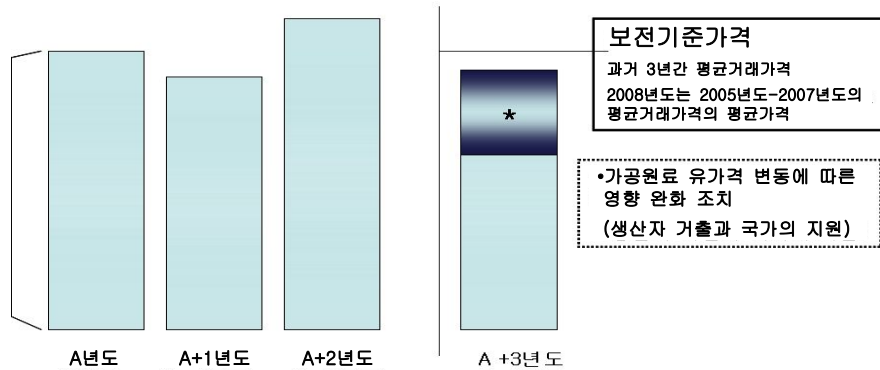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http://www.maff.go.jp))

경영안정정책에는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대책, 도부현 낙농긴급경영 강화대책, 대가축 특별지원 자금융통 등이 있다.

###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대책 사업

그림 1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 대책사업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대책사업)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http://www.maff.go.jp))

이 사업의 목적은 보급 계발, 생산자 적립금의 징수·관리, 보전금 교부 등의 업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경영안정 대책 기금을 지원하는데, 가공원료유 가격이 보전기준가격(과거 3년간의 평균 거래가격)을 밑도는 경우, 가공원료유 생산자에게 보전금(가격 하락분의 80%)을 지원한다.

### 도부연 낙농 긴급 경영강화대책 사업 (신규사업)

#### ① 도부연 낙농 긴급경영강화 지원사업

도부연 낙농 긴급경영강화 지원교부금 사업	이 사업에서는 낙농경영 강화계획(3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계획을 실시하는 낙농가에 대해, 4분기마다 「낙농 긴급경영강화 지원교부금(경산우 1두당 16,500엔/년 이내)」을 1년간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농 경영 강화 계획의 내용은 자급사료 생산 확대, 사육관리 개선, 육용우 부문 도입 등이다.
도부연 낙농 긴급경영강화 추진사업	이 사업에서는 전국회의·블록회의(지자체 단위 이하의 회의) 등을 개최하거나 관련된 계획을 실시하는 낙농가에 대해 필요한 지도 등을 실시한다.

#### ② 낙농 사료기반확보 추진 사업

이 사업에서는 낙농가, 유업체, 행정관계 등이 일체가 되어 사료자급률 향상 등의 목표를 수립하고 자급사료를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는 우량 사례 조사 등을 실시한다.

#### 대가축 특별지원 자금융통사업(신규사업) : 축우 농가 특별지원 자금융통 사업

이 사업은 낙농 및 육용우 경영에 대해 장기·저리 차환자금 융통을 실시하는 농협 등 읍자기관에 대해 이자를 지원함과 동시에 보증기반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영개선 자금은 매년 약정상환액 중 당 연도에 상환이 곤란한 부분을 차환할 수 있는 로링 방식의 자금 융통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경영계승 자금은 후계자가 부친에게서 대가축 경영을 계승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부채를 일괄해 차환하는 자금을 융통하는 사업이다. 보증기반 확충은 위에 열거한 자금을 원활히 융통하기 위한 보증기반의 확충에 노력하는 사업이다.

사료·원유가 상승에 대한 긴급 대책은 2008년도에만 적용하였다. 이 대책은 기존 자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사업이며, 대출금리 3%를 최고로 하는 기존의 축산특별자금의 금리 상당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 사료수급 정책

일본의 사료수급 정책 또한 매우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각 사업의 목적 및 구성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료수급정책에는 낙농 사료기반 확대 추진사업, 국산 사료 자원 활용 촉진종합 대책사업, 가축사료 특별지원 자금융통 사업, 사료가격 상승 등 이해도 증진 긴급대책 사업 등이 있다.

**낙농 사료기반 확대 추진사업 (약중사업)**

먼저 낙농 사료기반 확대 추진사업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낙농경영 확립을 목적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경산우 1두당 사료작부면적이 기준 면적(홋카이도 40a/두, 도부현 10a/두) 이상인 농가 중에서 환경보전, 사료 자급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생산자에게 사료작물 작부면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한다. 즉,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환경보전, 사료자급을 향상에 이바지하는 계획을 실시하는 낙농 경영
- ② ①의 계획과 더불어 사육관리 변경에 의한 환경부하 경감, 사료자급을 향상에 노력하는 낙농경영

표 2 일본의 사료수급 정책

사업명	사업목적	실시주체	소요액 (백만엔)	담당부서
낙농 사료기반 확대 추진	축산 환경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료기반 확대	(사)중앙낙농회의	5,446	축산기획과
에코 피드 등 이용 촉진	청에 옥수수 및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과 자급 가능한 국산사료의 생산 및 이용 확대	(사)일본초지축산종자협회, (사)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 (사)중앙축산회	6,867	축산진흥과
청에 옥수수 생산 긴급확대	토지기반에 기초를 둔 가축생산으로 전환 추진	(사)일본초지축산종자협회	1,217	축산진흥과
사료증산 수탁 시스템 확대	사료생산을 담당하는 수탁조직 육성·확대	전국연	968	축산진흥과
사료용 짚 도입 정착화	사료용 짚의 이익 활용에 필요한 기계 등의 정비	(사)일본초지축산종자협회, (사)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	3,140	축산진흥과
미활용 자원 사료화 촉진	식품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을 사료로 이용	(사)중앙축산회, (사)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	434	축산진흥과
조사료 자급을 향상 종합 대책	토지기반의 기초를 둔 축산경영 확대	(사)일본초지축산종자협회	867	축산진흥과
축산 생산성 향상 촉진	축산의 생산현장에서 사육관리 본연의 자세를 점검·검증 및 최대한의 효율적인 생산 추진	(사)중앙축산회	243	축산진흥과
가축사료 특별 지원 자금융통	사료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	(사)중앙축산회	68,000	축산기획과
사료가격 상승 등 이해도 증진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계 등의 정비 추진	(재)축산환경정비기구	13,409	축산기획과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http://www.maff.go.jp))

**국산사료 자원 활용 촉진 중앙대책 사업 (약중사업)**

• 청에 옥수수 생산 긴급확대 사업(신규사업) : 지급 사료 증산 긴급대책

현재 사료작물 이외의 작물이 작부되어 있는 밭이나 경작포기지에 새롭게 청에 옥수수나 수수 등 고영양 사료작물을 작부하는 경우, 계획면적에 따라 조성금으로 10a당 1만 2천 엔을 지원한다.

• **사료중산 수탁 시스템 확대 긴급대책사업 (확충사업) : 지급 사료 중산 긴급 대책**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매스 작물 생산의 긴급 추진 사업은 청에 옥수수 등 바이오매스 작물의 긴급한 생산 확대를 위해 사료생산 수탁을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바이오매스가 큰 장대(長大)작물의 작업수탁면적을 3년간 확대하는 연결체(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결체에 해당하는 용어를 컨트랙터라 부른다)에 대해 단년도에 한해 바이오매스 작물 작부작업 및 수확작업에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연결체 업무 평준화 촉진(수탁 작업 종목 확충)사업은 연결체 육성·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수탁면적 조성에 대해 사료용 쌀의 작부작업, 사료용 쌀의 수확작업 등을 보조대상 수탁작업 종목에 새롭게 추가한 사업이다.

• **사료용 쌀 도입 정착한 긴급 대책 사업 (확충사업)**

이 사업에는 사료용 쌀의 이용확대를 위한 검토회 개최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계속사업), 사료용 쌀의 이익 활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계속사업), 사료용 쌀(2008년산 대상)의 이익 활용을 모델 실증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확충사업)과 사료용 쌀을 주식용 쌀과 구분하여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신규사업), 배합사료 원료로서 사료용 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시설의 정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신규사업) 등이 있다.

• **미활용 자원 사료화 촉진 사업 (확충사업)**

이 사업 중 지역 에코 피드 이용체제 확립을 지원하는 사업(확충사업)은 지역에서의 미활용자원의 사료이용을 진행시키기 위한 관계자에 의한 제휴, 지역 정보의 분석 등을 실시하고 동시에 식품부산물 사료화를 사업화하기 위해, 전문기술·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지역 연수회 개최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검토·조언을 담당하는 전문 기술자를 지역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 **조사료 지급을 향상 종합 대책 사업 (확충사업)**

이 사업은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초지를 고생산성 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조사료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방목에 의한 효율적인 사료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방목을 실시하는 생산자 집단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방목 경험이 있는 소를 대출(렌탈 카우)하는 구조를 지역에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사료작물 종자의 증식 보관을 실시함과 동시에 벼 발효 조사료용 등의 생산 확대에 대응한 전용품종 종자 공급체제를 긴급하게 정비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 **축산 생산성 향상 촉진 종합대책사업 (확충사업)**

이 사업에는 전국 및 블록단계(지자체 이하 단계)에서 사육기술 보급 등에 의한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자로 구성된 보급 추진 검토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있다. 아울러 지역단계에서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육관리 기술 등에 관한 스터디 그룹을 개최하고, 이 외에 상담 창구의 설치, 지역에 있어서의 축산 농가의 조언·지도사업(확충사업), 선행 사례 조사·분석(확충 사업), 기술 보급용 팸플릿 등을 작성·배포하는 사업 등이 있다.

**가축사료 특별지원 자금융통 사업 (약충사업)**

배합사료가격(보전금을 제외한 농가 실질부담 가격)이 상승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노력을 근거로 하여 생산비가 수익을 웃도는 수준(지표로서 단위 당 배합사료 가격 수준을 설정)이 된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구입자금 융통을 실시하는 융자기관에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의 용도는 사료비에 국한하며 대출 이율은 2008년 3월 현재 1.25%로 설정되어 운용중에 있다. 상환기한은 10년(그 중 거치기간 3년) 이내이며 대출 한도액은 비육우의 경우 두당 4만 엔, 젖소의 경우 3만 엔, 번식 암소의 경우 8천 엔이다. 돼지 역시 두당 8천 엔이며, 닭의 경우 100수당 4만원이 한도이다. 이자 보급률은 농업 근대화 자금의 기준 금리와 대출 이율과의 차이이며, 융자기관은 농협, 농협연, 농림중앙금고, 은행 등이다. 이 때 도도부현 농업신용기금협회가 실시하는 채무보증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사료가격 상승 등 이에도 증진 긴급대책 사업 (신규사업)**

이 사업 내에는 추진 협의회 등 개최에 대한 지원, 홍보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추진 협의회 등 개최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는 사료가격 상승이나 생산자의 생산성 향상 계획 등에 대해 생산자, 가공·유통업자 및 소비자 사이에 인식이나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단계에서의 중앙추진협의회, 지방단계에서의 지방추진협의회 등을 개최하는데 지원한다.

홍보개발 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생산자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 생산자 단체 등이 실시하는 포스터나 팸플릿을 이용한 캠페인, 가두선전 등 홍보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외에 도·소매 단체 등 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다. 이는 도·소매단체나 생협 등이 실시하는 축산물 가격 인상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에 지원하는 것이다.



## 생산성 향상 정책

표 3 일본의 생산성 향상 정책

사업명	사업목적	실시주체	소요액수	담당부서
낙농 헬퍼 이용확대 추진사업	어유있고 생산성이 높은 낙농경영의 실현을 도모하고, 신규 취농 및 원활한 경영계승을 촉진하여 일본 낙농의 안정 발전에 기여	(사) 낙농헬퍼 전국협회	421 (백만엔)	축산 기획과
낙농 생산기반 개선 지원 대책 (낙농 생산성 향상)	젖소의 생애 생산성 향상 및 고도 번식기술 활용을 위한 계획과 사육관리 기술·방법의 향상에 대한 계획을 지원하여 낙농 생산기반 개선	(사) 가축개량 사업단	751 (백만엔)	축산 진흥과
축산·낙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인용 보조 리스 사업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계 등의 정비를 추진	(제) 축산환경 정비기구	13,409 (백만엔)	축산 기획과

생산성향상정책에는 낙농 헬퍼 이용확대 추진사업, 낙농 생산기반 개선 지원 대책 사업, 축산낙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인용 보조 리스 사업이 있다.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 홈페이지([www.maff.go.jp](http://www.maff.go.jp))

### 낙농 헬퍼 이용확대 추진사업

이 사업 중 이용 확대 보조금 교부사업은 낙농가에 대해 이용 날짜 증가에 대응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헬퍼 요원 확보·양성 사업으로 헬퍼 취업 희망자 모집, 상담 활동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헬퍼 요원 양성, 연수회를 개최한다. 질병 시의 헬퍼 이용 원활화 사업으로 질병 시 헬퍼 이용 요금을 경감하는 상호지원제도를 실시하는 이용조합의 상호지원조직의 광역화와 이용조합의 통합 등 상호지원제도의 보급·정착화에 노력하는 경우, 경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성(지원)한다.

신규 취농·경영계승 추진사업은 신규 취농 희망자 및 경영이양 희망자의 정보 수집 등을 실시하여, 신규 취농 및 원활한 경영계승을 추진한다.

### 낙농 생산기반 개선 지원대책 사업 (약중사업) : 낙농 생산성향상 대책

이 사업 중 우량 종축의 고도 이용에 의한 유전적 능력 향상(능력이 높은 소 개량)사업은 고능력 젖소군(群)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지역단계에서의 검토회를 실시하거나 생애 생산성 향상에 불가결한 체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유전적 개량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실시한다. 또한 젖소군의 유전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량 수정란과 공란우 등 도입이나 고도의 번식기술을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 지원한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육관리 기술 개선(튼튼하고 건강한 소 개량) 사업은 젖소의 사육관리 기술 개선에 있어 필요한 사료급여 정보, 번식 정보 등의 수집을 실시하고, 수집한 사료급여 정보나 유전적 능력 정보 등에 근거한 적절한 기술지도, 기술 지도원 연수 등의 실시와 유량, 유질 개선 지도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축산경영 생산성 향상 지원 리스사업(신규사업) : 축산·낙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인용 보조 리스 사업**

축산경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등을 축산농가(대출 대상자)에 리스하는 사업 실시 주체에 대해 해당 기계 등 구입비의 1/3을 지원한다. 대출 대상자는 대상 기계 등을 2/3의 비용으로 리스 방식에 의해 도입하며, 대상 기계는 축산경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계 등이다.

**유통개선 정책**

표 4 일본의 원유 및 우유 유통개선 정책

사업명	사업목적	실시주체	소요액 (백만엔)	담당부서
광역 원유 유통체제 확립 사업	원유의 유통비용 절감과 정확한 수급조정을 위한 광역적 원유 유통체제 확립	(사)중앙낙농회의	300	우유유통제품과
유업재편 정비 등 대책 사업	유업공장의 재편 합리화와 집약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저유시설 집약화 등을 지원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 등	4,120	우유유통제품과
지정생유 생산자 단체 보급 교부금	거래조건이 불리한 가공 원료유의 생산자 보급금 교부	지정생유생산자단체	22,500	우유유통제품과
가공 원료유 확보 특별 사업: 원유수급 관련대책 강화	일과성 수요에 대응하는 가공원료유를 공급하는 지정생유생산자단체 지원	(사)중앙낙농회의, 지정생유생산자단체	1,392	우유유통제품과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http://www.maff.go.jp))

유통개선 정책에는 광역 원유 유통체제 확립사업, 유업재편 정비 등 대책 사업, 지정 생유 생산자 단체 보급 교부금, 가공 원료유 확보 특별사업이 있다.

**광역 원유 유통체제 확립사업**

이 사업에는 중앙 단계에서의 사업과 지방 단계에서의 사업이 있다. 중앙 단계의 사업은 통일적인 유량측정 및 샘플채취 방법 검토, 매뉴얼 작성, 지도자 연수, 회의 개최 등 국제화 진전 등을 포함한 생산구조 연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방 단계의 사업은 통일적인 유량측정 및 샘플채취 방법 보급·정착을 위한 연수회 개최, 유가 테이블 검토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방단계 사업은 주로 통일적인 유량계 및 샘플러를 밀크 탱크로리에 설치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핵심이다.

**유업재편 정비 등 대책 사업**

유업재편 정비 사업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업공장을 정비할 것인가? 하는 대책과 폐업공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대책 그리고 원유 및 우유의 공동 배송 시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대책, 집·송유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진 정

비할 것인가? 하는 대책, 마지막으로 위의 재편대책들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추진대책으로 구성된다.

먼저, 효율적인 유업공장 정비대책은 우유·유제품 제조의 합리화를 위해 복수의 유업체가 제휴하여 실시하는 유업공장의 신·증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폐업공장 대책은 고도의 위생관리 수준을 갖춘 유업공장에 생산을 집약하기 위해 유업공장의 폐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공동 배송시설 정비대책은 우유·유제품의 유통 합리화·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 배송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집·송유 합리화 추진 정비사업은 잉여 원유의 일시적인 수급조정을 위한 잉여 원유처리 기능을 가지는 거점 시설 또는 집·송유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거점시설로서의 대형 저유시설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재편 정비 추진 대책은 위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단체 등이 실시하는 전국회의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정 생유 생산자 단체 보급 교부금

이 사업은 거래조건이 불리한 가공 원료유에 대해 생산자에게 보급금(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지정 생유(원유) 생산자단체가 생산자에게 보급금을 교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금 단가는 원유 kg당 11.55엔이며, 195만 톤을 한도로 지급된다.

### 가공 원료유 확보 특별 사업(신규사업) : 원유수급 관련대책 강화

이 사업은 우유의 일과성 수요에 대응하여 가공원료유를 생산하는 지정 생유 생산자단체, 그중에서도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에 대해 기장·기록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지정 생유생산자단체에 한하여 가공원료유 생산자 지원금 상당 금액을 지원한다. 즉, 대상 원유는 일과성 수요에 대응한 가공원료유로 수량한도 195만 톤을 포함하여 최대 207만 톤까지 지급된다. 지원금 단가는 11.55 엔 /kg이다.

그림 2 가공 원료유 확보 특별 사업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http://www.maff.go.jp))

## 소비확대 정책

표 5 일본의 소비확대 정책

사업명	사업목적	실시주체	소요액(백만엔)	담당부서
우유 유제품 소비 확대 특별사업	우유·유제품 소비확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사)일본낙농유업협회, (사)중앙낙농회의, (사)전국농협유업협회 등	699	우유 유제품과
원유 계획생산 원활화 지원	우유가격 인상에 의해 소비가 감소할 경우 우유 가격인상의 영향을 완화	(사)중앙낙농회의	1,225	우유 유제품과
광역 지정단체 신규 수요개발 지원	새로운 탈지유 수요 개발을 지원함	(사)중앙낙농회의,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낙농협동조합연합회	412	우유 유제품과
원유 수요구조 개혁사업	수입품과 경쟁력을 가진 유제품용 원유 공급확대를 지원 및 추진	(사)중앙낙농회의	9,637	우유 유제품과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소비확대 정책에는 우유 유제품 소비확대 특별사업, 원유 계획생산 원활화 지원, 광역 지정단체 원활화 지원, 광역지정단체 신규수요개발지원, 원유수요구조개혁사업이 있다.

### 우유 유제품 소비확대 특별사업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1) 기능성의 조사 및 보급개발, 2) 수급실태 조사 및 신상품 개발 촉진, 3) 낙농에 대한 이해 양성 활동 추진, 4) 일본 우유·유제품의 가치 향상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성의 조사 및 보급 개발사업은 우유·유제품의 기능성·유용성 등의 조사 및 학술논문의 수집·정리, 창조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상품 소개 등을 통해 보급개발 촉진 등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실태 조사 및 신상품 개발 촉진 사업은 우유·유제품의 수요동향 등에 관한 조사, 소비자 요구 파악, 신상품 개발 촉진 등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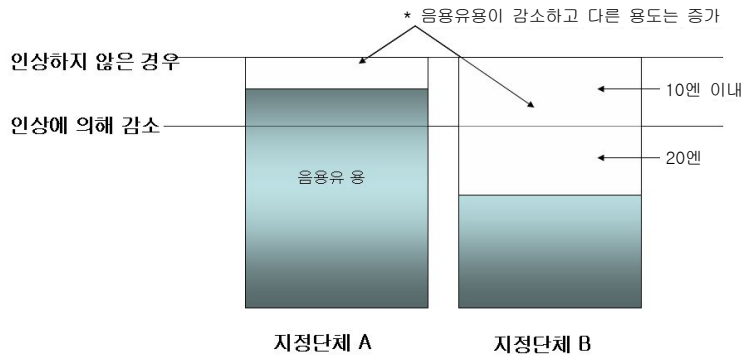
낙농에 대한 이해 양성 활동 추진사업은 낙농에 대한 이해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주체가 되는 낙농가 육성 및 활동 실시 목장의 지도, 자가 우유·유제품 제조를 위한 기술 연찬 등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본 우유·유제품의 가치 향상 대책 사업은 제조·유통단계에서의 품질관리 고도화, 우유·유제품을 이용한 요리강습회 개최, 우유판매점이 실시하는 보급 개발 활동 등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 원유 계획생산 원활화 지원사업(신규사업) : 음용유를 위한 수요 집계 시의 세이프티 넷(안전망) 대책

이 사업은 생산자단체가 실시하는 우유가격 인상에 의한 소비감소에 따른 음용유 전용이 감소(그 외 전용 용도가 증가)한 지정 생유생산자단체에 대한 「과도보상」을 지원한다. 즉, 우유가격을 인상하여 음용유 소비가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부분 중 우유가격 인상에 의해 평균적으로 줄어든 부분을 기준으로 더 또는 덜 줄어든

부분에 대해 차별적으로 보상에 주는 방법이다. 보전금은 평균 감소율을 초과한 감소분에 대해서는 kg당 20엔을, 평균 감소율 이내의 감소분에 대해서는 kg당 10엔 이내를 지원하며, 거출금액은 생산자 단체 음용유용은 kg당 10전, 조성금 음용유용은 kg당 30전을 거출한다.

그림 3 원유 계획생산 활성화 지원사업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 광역 지정단계 신규 수요개발 지원사업 (신규사업) : 음용유용 수요 침체 시의 세이프티 넷 대책

이 사업은 전국연합회가 새로운 탈지유 수요를 개발하여, 해당 수요용 원유를 공급하는 경우에 장려금으로 kg당 10엔을 지원하며 전국연합회가 탈지유를 새롭게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유입공장의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 원유 수요구조 개혁사업 : 원유 수급관련 대책 강화

이 사업으로는 지정 생유생산자단체가 치즈, 액상유제품 및 발효유용 원유를 기준 수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장려금으로 신규 확대분에 대해서는 12엔/kg, 증가 실적분에 대해서는 10엔/kg을 지원한다.

## 3. 일본의 낙농정책에서 배워야 할 점

일본에서는 낙농관련 주체를 고려한 정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낙농산업 관련 단체들이 모여 검토회 등을 거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정책의 실시단계에서도 계속되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아울러 생산자와 가공·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 사이의 의식과 인식의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서로간의 어려움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낙농관련 주체를 고려한 정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낙농산업 관련 단체들이 모여 검토회 등을 거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정책의 실시단계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둘째, 사료기반 확대정책에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특히 국내 미이용, 저이용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생산자와 연계시키는 노력 등을 통해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조사료 정책은 환경문제와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친환경축산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미국이나 EU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일본에는 사료가격 안정기금과 곡물비축제도를 병행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사료가격 안정 기금을 도입하여 폭등하는 사료가격의 충격 완화가 필요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곡물비축제도에 사료곡물을 추가하여 사료의 수급 불안 및 가격폭등 시 비축 사료곡물을 방출하는 정책도 요구된다.

넷째, 컨설팅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유질 향상을 위한 지도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유방염 등 각종 질병의 방제대책을 강구하며 유질 검사의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수의중심의 컨설팅을 개편하여, 수의·환경·경영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컨설팅 체계(one-stop servic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헬퍼 육성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낙농 헬퍼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기술수준이 높지 않고 이용률도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전문적인 낙농 헬퍼를 육성하여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여섯째, 농기계 등의 리스 사업을 통해 농가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다. 우리나라도 시설·기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공급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농기계 리스를 통한 비용절감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곱째, 생산자, 가공·유통업자 등에 지원하는 사업 중 일시적으로 자금유동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하다.

# 영국의 농촌지역통계정보 현황\*

김용렬

영국의 농촌지역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잉글랜드 CRC(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가 매년 발행하는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보고서와 영국 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ONS)에서 제공하는 지역통계 데이터베이스인 Neighborhood Statistics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잉글랜드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보고서

영국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은 영국 잉글랜드의 CRC에서 농촌 지역에 대한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이슈들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담아 발간한 보고서이다.

영국의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는 잉글랜드의 CRC(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가 농촌지역에 대한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이슈들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담아 발간한 보고서이다. 2007년도에는 건강정도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지수,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지수, 지역별 공기의 질 지도, 경쟁지수, 경제복지에 대한 새로운 지수들을 선보였다.

공간범위는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와 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ONS)에서 구분한 도시와 농촌의 기준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였다. 이 보고서는 주로 잉글랜드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국가 단위의 조사들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초로 하였으며,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데이터를 얻고 있다.

\* 본 내용은 영국의 보고서와 지역통계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kimyl@krei.re.kr, 02-3299-4632)

표 1 영국의 도시와 농촌의 구분 기준

구분	도시(Urban)	농촌(Rural)	
환경식품농촌부 <sup>1)</sup>	Other urban Large urban Major urban	Rural 80 Rural 50 Significant rural	
통계청 <sup>2)</sup>	인구 10,000 명 이상	인구 10,000 명 이하	
		Less sparse	town and fringe villages hamlets and isolated dwelling
		Sparse	town and fringe villages hamlets and isolated dwelling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치의 구성은 3개 대주제(농촌생활, 경제복지, 토지와 환경), 13개 소주제, 64개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대주제, 농촌생활은 6개 소주제(인구와 인구이동, 서비스 접근, 주택, 건강과 의료, 교육, 농촌지역 공동체와 거버넌스), 21개 세부내용, 59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대주제인 경제복지는 3개 소주제(소득·부·소비, 고용, 농촌지역의 기업과 기업가), 25개 세부내용, 54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번째 대주제인 토지와 환경은 4개 소주제(토지이용, 토지가치, 환경의 질, 기후변화), 17개 세부내용, 32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농촌생활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통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주택에서는 주택평균가격이 제시되고 있고, 건강과 의료에서는 과일과 채소의 소비량, 건강에 해로운 습관, 정신건강에 대한 통계가 제시되어, 단순 물리적 물량을 나타내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치의 구성은 3개 대주제(농촌생활, 경제복지, 토지와 환경), 13개 소주제, 64개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환경식품농촌부의 도시와 농촌 기준:

〈도시〉

- Other urban: 인구 37,000명 이하 혹은 농촌정주지역과 중심소재지에 사는 인구가 26% 이하인 지역
- Large urban: 인구 5만 명 혹은 인구 중 50%가 인구 25만 명-75만 명의 인구를 가진 17개 도시지역중 하나에 사는 지역
- Major urban: 인구 100만 명 혹은 인구 중 50%가 인구 75만 명 이상의 인구를 지닌 도시지역에 사는 지역

〈농촌〉

- Rural 80: 인구 중 적어도 80%가 농촌정주지역과 중심소재지에 사는 지역
- Rural 50: 인구 중 50%-80%가 농촌정주지역과 중심소재지에 사는 지역
- Significant rural: 인구 37,000명 이상 혹은 농촌정주지역과 중심소재지에 사는 인구가 26% 이상인 지역

2) 통계청의 농촌기준은 1ha 격자 모양과 인근 격자 모양에 포함되는 가구 수를 평균하여 town and fringe, villages, hamlets and isolated dwelling로 구분하고, 1ha 격자 내의 가구 수의 평균을 10km, 20km, 30km의 반경으로 계산하여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희박(sparse)지역으로 구분함.



는 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성적이 있는 아이들의 비율을 사용하여 교육의 질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지역공동체 활동을 나타내는 지역사회 활동정도와 시민자문위원회 활동 등에 대한 통계가 있어 지역사회의 활력도와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들을 수록하고 있다.

소득·부·소비의 경우 소득, 평균소득, 개인평균소득, 주당평균가구소득, 도농간 가구 재정비교, 소득출처, 소득과 세금, 경제활동별 소득, 나이별 주당 평균소득 등 지역경제와 가정경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세밀하게 공표되고 있다. 지역고용은 고용율,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고용율, 경제활동가구비율, 퇴직이유와 같은 통계들이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서는 수질과 공기의 질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대해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 요소별 탄소배출량, 부문별 탄소배출량을 발표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영국 잉글랜드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보고서

대주제	소주제	세부내용
농촌생활	인구와 인구이동	나이별 인구분포, 인구이동
	서비스 접근	서비스 제공 시설, 서비스 시설 접근성, 서비스 시설 접근의 편리성, 자동차 보유정도, 어린이(5-10세)와 청소년(11-16세)의 통학 수단, 통신서비스별 가구 비율
	주택	주택보급, 주택가격, 집없는 정도, 주택상태
	건강과 의료	과일과 채소 소비량, 건강에 해로운 습관, 정신건강
	교육	학습효과, 교육수준
	농촌지역공동체와 거버넌스	지역사회 활동 정도, 안전성, 시민자문위원회 활동, 지역신용거버넌스
경제복지	소득, 부, 소비	소득, 평균소득분포, 경제활동별 개인평균소득, 주당 평균 가구 지출, 세금, 도농간 가구 재정 비교, 가구소득 출처, 소득과 세금, 경제활동별 소득, 나이별 주당 평균 소득,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고용	주거와 직장, 지역별 고용 차이, 고용수준이 높은 지역, 노동시장, 이민자의 농촌 노동시장, 농촌지역사업특성과 고용, 직장을 떠나는 고령자들의 이유(남,여)
	농촌지역의 기업과 기업가	창업, 기업가, 지속가능성, 생산성, 거래액, 농촌과 도시간의 시장연계성, 기업위치
토지와 환경	토지이용	개발, 보존, 재개발, 농지이용, 농지 구매자
	토지가치	식량자급율, 유기농 농지, 유기농산물 생산자, 식량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 풍력발전, 물소비량, 농촌,해안,산림 방문회수
	환경의 질	수질, 공기
	기후변화	탄소 배출량, 요소별 탄소 배출량, 부문별 탄소배출량

## 2. 영국 Neighborhood Statistics

<http://neighbourhood.statistics.gov.uk/> 참조. 본 통계에서의 지역구분은 아래와 같이 11개 기준에 의해 구분되어 있음.

- Local Authority: 좀 더 낮은 단계의 지방정부를 기준으로 함.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1단계 지역정부 (unitary authority), 잉글랜드의 런던, 웨일즈의 unitary authority, 스코틀랜드의 카운실(council) 지역
- Electoral Ward(선거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 Super Output Area(SOA): 지역통계보거나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이용하는 소지역을 의미함.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Lower Layer(최소 인구 1,000명), Middle Layer(최소인구 5,000명). 선거구와 달리 이들 SOA Layer들은 크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음.
  - Lower Layer Super Output Area(LSOA): 잉글랜드와 웨일즈(최소 주민 1,000명, 평균 1,500명), 스코틀랜드(최소 주민 500명), 북아일랜드(최소 주민 1,300명, SOA와 동일시 취급)
  - Middle Layer Super Output Area(MSOA): 잉글랜드와 웨일즈(최소 주민 5,000명, 평균 7,200명), 스코틀랜드(최소 주민 2,500명)
- Output Area(OA): 센서스 조사의 기본단위임. 1991년 스코틀랜드에 도입되었고 영연방은 2001년에 도입하였음. 스코틀랜드에서는 최소 50명 주민의 규모이고, 그 외 영국 전지역은 최소 100명 주민의 규모를 기본으로 함.
- Primary Care Organization: 지역의료행정단위
- Health Authority: Stragic Health Authority라고도 함.
- Education Authority: 지역교육행정단위
- Westminster Parliamentary Constituency: 영연방의회 의원 선출 선거구
- Parish: 지방정부에 소속된 소지역

영국 통계청(ONS)에서 제공하는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는 2001년 센서스 데이터와 최근 지역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본 통계는 15개 주제에 304개 데이터셋, 그리고 이 데이터셋 하부에 1,515개의 변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센서스 지역통계는 55개 데이터 셋, 주요통계 31개 데이터 셋, 서비스 접근성 8개 데이터 셋, 지역복지/사회환경 8개 데이터 셋, 범죄와 안전 1개 데이터 셋, 경제 10개 데이터 셋, 교육 및 훈련 13개 데이터 셋, 건강과 의료 18개 데이터 셋, 주택 25개 데이터 셋, 지수 30개 데이터 셋, 결핍지수 26개 데이터 셋, 사람과 사회(소득과 라이프스타일) 20개 데이터 셋, 사람과 사회(인구와 인구이동) 19개 데이터 셋, 물리적 환경 3개 데이터 셋, 일자리 27개 데이터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영국의 지역통계(Neighborhood Statistics)는 최소인구 1,000명, 평균인구 1,500명 규모, 스코틀랜드는 최소 인구 50명의 구역까지 자세한 통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취약한 부분인 소득, 고용, 질적인 교육성과, 서비스접근성, 질적인 건강의료복지, 환경에 대한 통계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부족한 면을 수록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 통계청(ONS)에서 제공하는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는 2001년 센서스 데이터와 최근 지역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본 통계는 15개 주제에 304개 데이터셋, 그리고 데이터셋 하부에 1,515개의 변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소득은 소득지표, 연금, 구직수당 등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둘째, 고용은 노동시간, 산업별 고용, 실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셋째, 질적인 교육성과에는 학생성적, 교육성과율, 국가교과과정평가 등으로 질적 평가가 가능한 통계들이 제시되어 있다. 넷째, 서비스접근성은 도로를 고려한 서비스 접근성, 통근거리, 화재와 구조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다섯째, 질적인 건강의료복지서비스에 관해서는 중병과 장애지수, 정신건강지수, 병원응급실이용지수가 등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통계에 있어서는 공기의 질 지수와 토지이용통계에 관한 통계들이 잘 수록되어 있다.

표 3 영국 Neighborhood Statistics 구조<sup>1)</sup>

주제	데이터 셋(개)
○ 2001년 센서스: 센서스 지역통계	55
○ 2001년 센서스: 주요통계	31
○ 서비스 접근성	8
○ 지역복지 / 사회환경	8
○ 범죄와 안전	1
○ 경제	10
○ 교육 및 훈련	13
○ 건강과 의료	18
○ 주택	25
○ 지수	30
○ 결핍지수와 분류	26
○ 사람과 사회: 소득과 라이프스타일	20
○ 사람과 사회: 인구와 인구이동	19
○ 물리적 환경	3
○ 일자리	27

### 3. 영국의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과 안국 농촌 지역통계 비교

대주제별로 영국과 우리나라의 농촌지역통계를 직접 비교함으로써 두 나라간의 농촌지역통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Neighborhood Statistics의 지역통계체계를 알아보기 위해 Lower Layer Super Output Area(LSOA)을 기준으로 선택한 Hertfordshire 카운티의 Three Rivers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데이터를 살펴 봄

표 4 영국의 농촌지역통계와 한국 농촌지역통계<sup>2)</sup> 비교(농촌생활)

소주제	세부내용	한국(군/읍면)
인구와 인구이동	나이별 인구분포	○
	인구이동	○
서비스 접근	서비스 제공 시설	△/○
	서비스 시설 접근성	△
	서비스 시설 접근의 편리성	△
	자동차 보유정도	○
	어린이(5-10세)와 청소년(11-16세)의 통학 수단	○
	통신서비스별 가구 비율	○
	주택	○
주택	주택가격	×
	집없는 정도	×
	주택상태	○
	건강과 의료	○
건강과 의료	과일과 채소 소비량	×
	건강에 해로운 습관	×
	정신건강	×
교육	학습효과	×
	교육수준	○
농촌지역공동체와 거버넌스	지역사회 활동 정도	×
	안전성	○
	시민자문위원회 활동	×
	지역신용거버넌스	○

주: ○(있음), △(부분적으로 있음), ×(없음)

첫 번째 대주제인 ‘농촌생활’을 비교해 보면, 인구와 인구이동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통계도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 접근에서 서비스 시설 접근성과 편리성, 통학수단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통계가 없고, 건강과 의료에서는 과일과 채소 소비량, 건강에 해로운 습관, 정신건강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에서는 학습효과에 대한 통계가 없고, 농촌지역공동체 활동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활동정도, 시민자문위원회 활동에 관한 통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대주제인 ‘경제복지’의 경우, 영국에서 공표되고 있는 소득, 부, 소비, 고용,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통계가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없다.

대주제별로 영국과 우리나라의 농촌지역통계를 비교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역통계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의 농촌지역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시군통계연보를 중심으로 군 혹은 읍면단위로 생산되는 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음

표 5 영국의 농촌지역통계와 한국 농촌지역통계 비교(경제복지)

소주제	세부내용	한국(군/읍면)
소득, 부, 소비	소득	X
	평균소득분포	X
	경제활동별 개인평균소득	X
	주당 평균 가구 지출	X
	세금	X
	도농간 가구 재정 비교	X
	가구소득 출처	X
	소득과 세금	X
	경제활동별 소득	X
	나이별 주당 평균 소득	X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X
고용	주거와 직장	O
	지역별 고용 차이	X
	고용수준이 높은 지역	X
	노동시장	X
	이민자의 농촌 노동시장	X
	농촌지역사업특성과 고용	X
	직장을 떠나는 고령자들의 이유(남,여)	X
농촌지역의 기업과 기업가	창업	X
	기업가	X
	지속가능성	X
	생산성	X
	거래액	X
	농촌과 도시간의 시장연계성	X
	기업위치	O

세 번째 대주제인 ‘토지와 환경’부분에서는 수질·공기 등 환경의 질, 탄소배출량과 같은 기후변화 통계들이 부족하였다.

표 6 영국의 농촌지역통계와 한국 농촌지역통계 비교(토지와 환경)

소주제	세부내용	한국(군/읍면)
토지이용	개발	○
	보존	○
	재개발	×
	농지이용	○
	농지 구매자	×
토지가치	식량지급율	×
	유기농 농지	△
	유기농산물 생산자	△
	식량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	○
	풍력발전	×
	물소비량	○
환경의 질	농촌,해안,산림 방문회수	×
	수질	×
	공기	×
기후변화	탄소 배출량	×
	요소별 탄소 배출량	×
	부문별 탄소배출량	×

참고자료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2007, 『The state of the countryside 2007』.

Neighborhood Statistics on ONS, <http://www.neighbourhood.statistics.gov.uk/>

# 세계 농산물 수급·가격 동향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9.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9.1)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9.1)

#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9. 1)\*

성명환

2006년 하반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곡물가격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중립종 쌀가격을 제외한 곡물가격은 2008년 6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 1. 국제 연물가격

### 쌀의 본선인도가격

2009년 1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86.8% 상승한 톤당 1,102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50.0% 상승한 톤당 576달러이다.

미 농무부(USDA)가 2009년 1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86.8% 상승한 톤당 1,102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50.0% 상승한 톤당 576달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상승하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쌀 가격은 2004년 11월 톤당 397달러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동일한 가격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5년 9월부터 가격이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까지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가 2006년 4월에는 톤당 485달러로 하락했다.

2006년 5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2007년 상반기 550달러, 하반기에는 5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중립종 쌀가격은 급격히 상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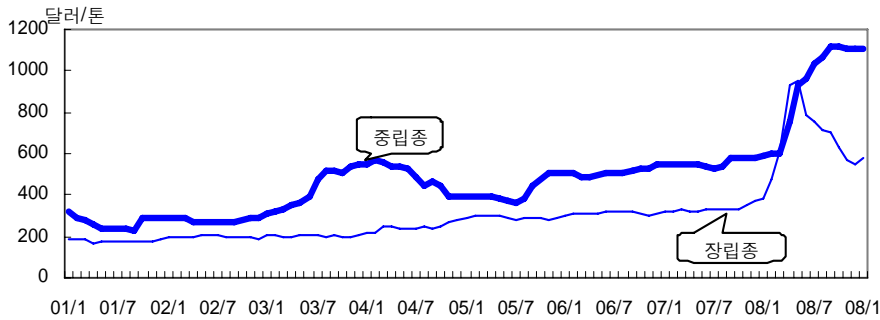
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4월 758달러, 9월에는 1,11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약간 하락하여 2008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1,102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86.8% 상승한 것이며 2008년 미국의 중·장립종 쌀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이란에 대한 태국산 쌀의 수출 수요 증대로 2006년 5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321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11월에는 302달러까지 내려갔다. 이후 2007년 10월까지 톤당 320~3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08년 2월에는 474달러, 3월에는 615달러, 4월에는 929달러, 5월에는 949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12월에 548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 1월 현재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50.0%, 전월대비 5.1% 상승한 톤당 576달러 수준이다.

2008년도 상반기 국제 쌀 가격이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쌀 수요가 증대하여 수출 공급량이 부족했으며 베트남, 인도, 중국, 캄보디아, 이집트의 자국 쌀 수요증가로 수출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의 생산 및 재고 증가로 장립종 쌀가격은 2008년 5월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약보합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 중립종 쌀 가격은 앞으로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중립종 쌀가격은 주요 수출국의 생산 및 재고 증가로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월별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주: 1) 중립종은 미국 캘리포니아 1등급 2) 장립종은 태국 100% grade B  
 자료: USDA(Rice Outlook).

표 1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국 가	2006/07	2007/08	2008.1	2008.12	2009.1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미 국	CA 중립종 <sup>1)</sup>	538	694	590	1,102	1,102	86.8	0.0
	남부 장립종 <sup>1)</sup>	407	621	518	632	606	17.0	△4.1
태 국 <sup>2)</sup>		320	551	384	548	576	50.0	5.1
베 트 남 <sup>3)</sup>		292	629	390	419	400	2.6	△4.5

주: 1) 남부 장립종은 2등급, California 1등급 정곡기준, 2) 태국 100% grade B, 3) 베트남 5% broken.  
 자료: USDA(Rice Outlook).

###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C&F: cost and freight)은 2006년 상반기 14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6월에는 424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188달러 수준이었다. 2009년 1월 13일 현재 전년 동월대비 39.9% 하락하고 전월대비 1.1% 상승한 톤당 19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대두의 운임포함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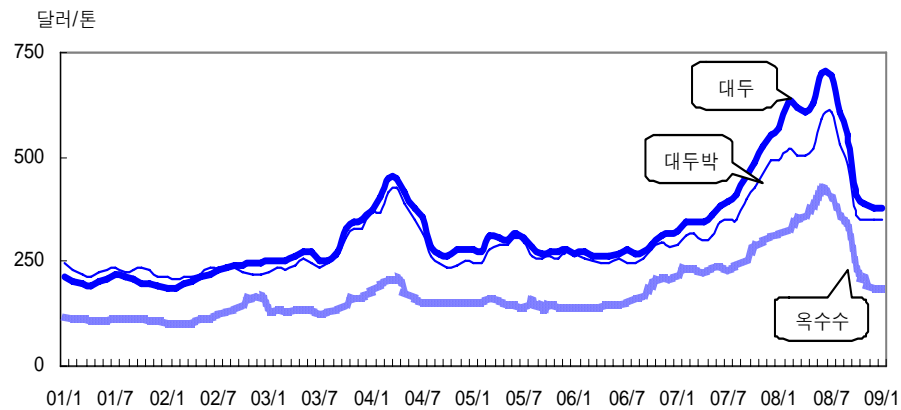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3월 톤당 4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10월에는 264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280~300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년 9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6월에는 톤당 700달러까지 올랐으나 2008년 12월에는 375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1월 13일 현재 전년 동월 대비 27.3% 하락하고 전월대비 10.1% 상승한 톤당 41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4월 톤당 4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25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8월 248달러를 시작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8년 7월 60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34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1월 13일 현재 전년 동월대비 23.3% 하락하고 전월대비 8.9% 상승한 톤당 379달러이다.

최근 선임의 급격한 하락으로 2009년 1월 13일 현재 각 곡물의 운임포함가격은 옥수수가 톤당 190달러, 대두가 톤당 413달러, 대두박이 톤당 379달러로 나타났다.

그림 2 월별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자료: 한국사료협회 2009년 1월 13일 기준 가격

표 2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C&F)

품 목	2006	2007	2008.1	2008.12	2009.1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옥 수 수	164	252	316	188	190	△39.9	1.1
대 두	278	410	568	375	413	△27.3	10.1
대 두 박	261	362	494	348	379	△23.3	8.9

자료: 한국사료협회 2009년 1월 13일 기준 가격

## 2. 국제 선물가격

2009년 1월 12일 현재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09년 3월물 인도분 밀 선물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7.4% 하락한 톤당 219달러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09년 3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2.3% 하락한 톤당 150달러, 2009년 1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4.4% 하락한 톤당 351달러이다.

### 밀의 선물가격

2005년 상반기까지 밀 선물가격은 톤당 120~13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달러로 하락하였다가 2006년 10월에는 19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밀 선물가격은 톤당 1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7년 5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에는 424달러까지 올랐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12월에는 20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1월 12일 현재 2009년 3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7.4% 하락하였지만 전월대비 5.3% 상승하였다. 2008/09년도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 증가와 세계 소맥 재고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소맥가격은 약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옥수수의 선물가격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4/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는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5/06년도에는 공급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 톤당 76달러에 이르렀다.

2009년 1월 현재 캔사스 상품 거래소의 2009년 3월물 인도분 소맥 선물가격은 219달러이며,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3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150달러, 2009년 1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351달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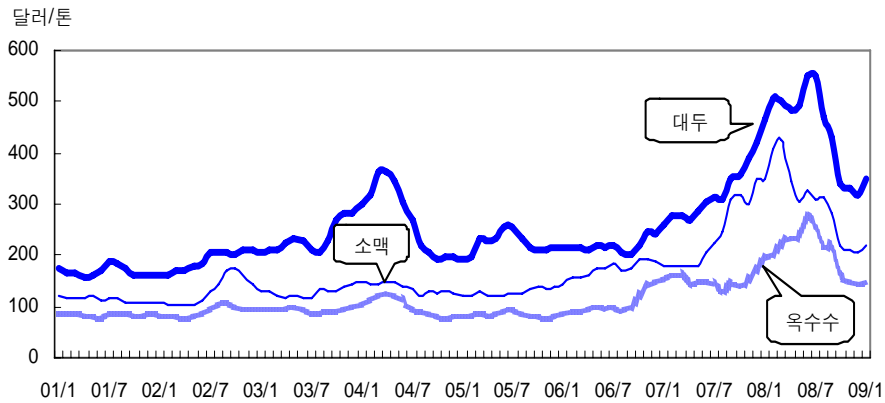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7년 2월에는 162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다소 하락하여 10월까지 톤당 1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7년 11월 톤당 150달러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8년 6월에 275달러까지 상승하였으며 다시 하락하여 12월에 145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 1월 12일 현재 2009년 3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150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2.3% 하락했지만 전월대비 3.4% 높은 수준이다. 2008/09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재고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옥수수 선물가격은 현재와 같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대두의 선물가격

2001년 이후 대두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두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36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도 대두 생산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으로써 2004/05년 대두 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대비 25.8% 하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톤당 19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10월까지 톤당 210~220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 2월 508달러, 6월에는 55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12월에 351달러까지 하락하였으며 2009년 1월 12일 현재 2009년 1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4.4% 하락하고 전월대비 10.0% 상승한 톤당 351달러이다. 대두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두 선물가격은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월별 소맥·옥수수·대두 선물가격 동향



주: 1) 소맥은 Kansas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3 소맥·옥수수대두의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품 목	2006/07	2007/08	2008.1	2008.12	2009.1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소 맥 <sup>1)</sup>	181	315	350	208	219	△37.4	5.3
옥 수 수 <sup>2)</sup>	140	203	193	145	150	△22.3	3.4
대 두 <sup>2)</sup>	267	462	464	319	351	△24.4	10.0

주: 1) 소맥(HRW) 2등급(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옥수수대두 곡물연도 9~8월, 2009년 1월 12일 기준 선물가격임.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4 연도별 세계 곡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연도 <sup>1)</sup>	쌀(FOB 가격)				선물가격		
	미국 <sup>2)</sup>		태국		소맥 <sup>3)</sup>	옥수수 <sup>4)</sup>	대두 <sup>4)</sup>
	장립종	중립종	100% Grade B	5% parboiled			
1987/88	421	366	273	261	108	87	251
1988/89	324	301	292	276	152	106	274
1989/90	342	352	292	259	144	100	217
1990/91	331	347	296	270	103	94	214
1991/92	368	384	287	269	131	99	212
1992/93	322	383	244	227	124	87	218
1993/94	439	451	294	244	123	103	242
1994/95	314	375	290	276	136	96	211
1995/96	414	445	362	344	188	150	271
1996/97	450	415	338	323	164	110	281
1997/98	415	396	302	292	130	101	239
1998/99	366	470	284	276	110	85	182
1999/00	270	454	231	242	105	83	182
2000/01	275	304	184	186	114	82	174
2001/02	207	285	192	197	108	85	174
2002/03	223	327	199	195	137	94	213
2003/04	360	533	220	221	136	104	295
2004/05	312	405	278	278	126	83	219
2005/06	334	484	301	293	142	88	214
2006/07	407	538	320	317	181	140	267
2007/08	621	694	551	571	315	203	462

주: 1) 곡물연도 쌀(8~7), 소맥(6~5), 옥수수(9~8), 대두(9~8)평균임. 2) 장립종 1997~98년까지는 Texas, 1998~99년 이후는 4% broken, Gulf Coast, 중립종 1등급 4% broken California, 3) 소맥(HRW) 2등급 (KCBOT) 4)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자료: USDA ERS

참고자료

-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Outlook>
- <http://www.ers.usda.gov/Data/PriceForecast/>
- <http://www.ams.usda.gov/mnreports/lstdgr.pdf>

#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9. 1)\*

성명환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 1월 12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08/09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22억 2,436만 톤, 소비량은 3.0% 증가한 21억 6,912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15.6% 늘어난 4억 946만 톤, 기말재고율은 18.9%로 전망되었다.

## 1. 전세계 곡물

2008/09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22억 2,436만 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21억 6,912만 톤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22억 2,43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소맥 등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맥 생산량은 전년대비 1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8/09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5,422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5억 7,858만 톤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보다 약 1억 1,840만 톤 늘어난 수준이다.

2008/09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도 전년보다 3.0% 증가한 21억 6,912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에는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5,52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로 전년보다 4.1% 감소된 2억 5,846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6%가 될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5.6% 증가한 4억 946만 톤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율은 2007/08년도보다 2.1% 포인트 높은 18.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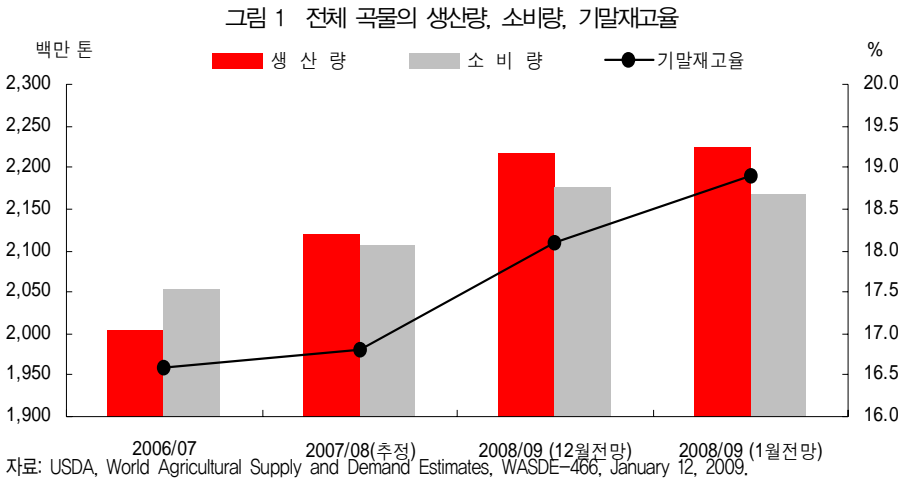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2	2009.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005.30	2,119.08	2,215.97	2,224.36	5.0	0.4
공 급 량	2,393.91	2,460.14	2,569.64	2,578.58	4.8	0.3
소 비 량	2,052.85	2,105.91	2,175.89	2,169.12	3.0	△0.3
교 역 량	259.96	269.59	261.38	258.46	△4.1	△1.1
기말재고량	341.06	354.22	393.75	409.46	15.6	4.0
기말재고율(%)	16.6	16.8	18.1	18.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6, January 12, 2009.

## 2. 쌀

2008/09년도 쌀 생산량은 2007/08년도보다 1.8% 증가한 4억 3,908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생산량도 전년보다 2.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4억 3,511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억 2,801만 톤보다 약 710만 톤 정도 많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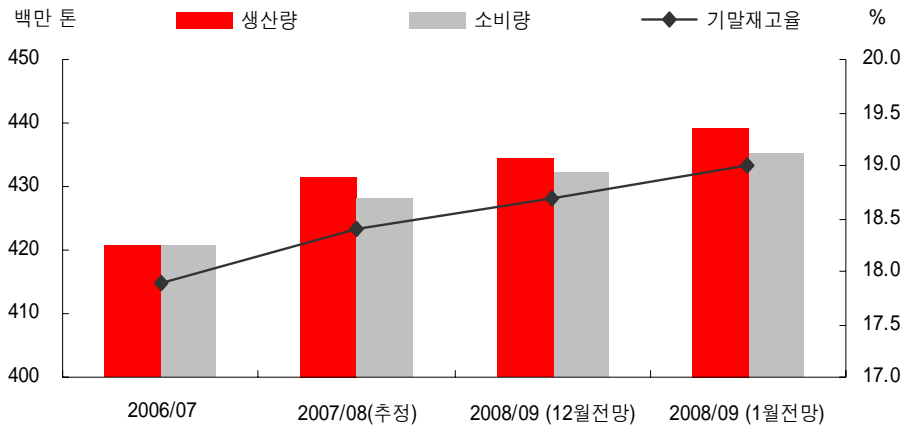
2008/09년도 쌀 생산량은 4억 3,908만 톤 수준으로 아시아 지역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쌀 소비량은 4억 3,511만 톤으로 예상된다.

2008/09년도 세계 쌀 교역량은 2,977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며,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수출량이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재고율은 19.0%로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보다 2.1% 줄어든 2,977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량의 경우 베트남은 전년대비 11.8%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수출량은 5%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의 수출량도 전년대비 6.4% 감소될 전망이다. 전세계 쌀 수출량 중에서 태국이 31.9%, 베트남 17.5%, 미국이 10.8%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비중이 60.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8,266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08/09년도 기말재고율은 19.0%로 전년도보다 약 0.6% 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미국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21.3% 줄어든 74만 톤으로 예상되며 베트남도 21.9%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각각 23.0%, 4.6%, 9.6%, 10.0%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2 쌀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6, January 12, 2009.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2	2009.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420.63	431.31	434.59	439.08	1.8	1.0
공급량	496.31	506.70	513.18	517.77	2.2	0.9
소비량	420.92	428.01	432.33	435.11	1.7	0.6
교역량	31.35	30.42	29.88	29.77	△2.1	△0.4
기말재고량	75.39	78.69	80.85	82.66	5.0	2.2
기말재고율(%)	17.9	18.4	18.7	19.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6, January 12, 2009.



### 3. 소맥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08/09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보다 11.9% 증가한 6억 8,28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7/08년보다 5.8% 증가한 6억 5,387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EU, 러시아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미국은 전년대비 20.0% 늘어날 전망이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1억 2,388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8/09년도 미국의 소맥 수출량은 전년보다 20.9% 줄어든 2,722만 톤이지만 전체 수출량의 22.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캐나다의 수출량은 전년보다 17.9% 늘어난 1,900만 톤, EU도 전년보다 55.4% 늘어난 1,900만 톤 정도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 기말재고량은 1억 4,836만 톤으로 전년보다 24.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EU의 재고량도 전년대비 각각 114.4%, 57.6%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율도 지난해의 19.3%에서 22.7%로 3.4%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6억 8,286만 톤, 소비량은 미국, EU, 러시아의 소비가 늘어나 6억 5,38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2	2009.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96.10	610.19	683.98	682.86	11.9	△0.2
공 급 량	743.74	737.20	803.34	802.23	8.8	△0.1
소 비 량	616.73	617.83	655.99	653.87	5.8	△0.3
교 역 량	111.20	115.38	123.38	123.88	7.4	0.4
기말재고량	127.01	119.37	147.35	148.36	24.3	0.7
기말재고율(%)	20.6	19.3	22.5	22.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6, January 12, 2009.

### 4. 옥수수

미국,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2008/09년도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0.1% 줄어든 7억 9,104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20.9% 감소하는 반면, EU는 전년대비 2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7억 8,322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 중국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각각 1.6%, 6.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0.1% 감소한 7억 9,104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 소비량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7억 8,322만 톤으로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78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기말 재고율은 전년보다 0.8% 포인트 늘어나 17.4%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2008/09년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78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19.5% 감소한 7,688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8%, 11.7%로 이들 두 국가가 전체 수출량의 69.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28.2%, 아르헨티나는 40.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6.1% 증가한 1억 3,60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보다 약 780만 톤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2008/09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8% 포인트 늘어나 17.4%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2	2009.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712.38	791.49	785.90	791.04	△0.1	0.7
공 급 량	837.00	900.34	913.70	919.26	2.1	0.6
소 비 량	728.15	772.12	789.87	783.22	1.4	△0.8
교 역 량	93.80	95.47	80.39	76.88	△19.5	△4.4
기말재고량	108.85	128.22	123.83	136.03	6.1	9.9
기말재고율(%)	14.9	16.6	15.7	17.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6, January 12, 2009.

## 5. 대두

2008/09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3,320만 톤, 소비량은 2억 3,111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교역량의 비중은 33.1%로 전망되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다.

2008/09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3,320만 톤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이 각각 10.5%, 7.1%, 20.0% 늘어나는 반면 아르헨티나는 전년대비 3.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은 2007/08년 2억 2,962만 톤보다 약 150만 톤 늘어난 2억 3,111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르헨티나, 중국의 소비량이 각각 2.9%, 4.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2.9% 감소한 7,719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3.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은 미국이 38.8%, 브라질이 32.7%, 아르헨티나가 18.7%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90.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브라질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5.3%, 0.4% 줄어드는 반면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4.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의 기말재고량은 5,394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5,310만 톤과 비교하여 1.6%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재고율은 23.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2	2009.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37.55	220.89	234.65	233.20	5.6	△0.6
공 급 량	290.64	283.57	287.75	286.30	1.0	△0.5
소 비 량	225.51	229.62	232.58	231.11	0.6	△0.6
교 역 량	71.50	79.48	77.08	77.19	△2.9	0.1
기말재고량	62.68	53.10	54.19	53.94	1.6	△0.5
기말재고율(%)	27.8	23.1	23.3	23.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6, January 12, 2009.

## 6. 대두박

2008/09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5,803만 톤으로 전년대비 0.3% 감소, 소비량은 1억 5,794만 톤으로 전년보다 0.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1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여 거의 균형상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0.1% 감소한 5,561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5.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 중에서 아르헨티나 49.2%, 브라질 22.3%, 미국이 13.7%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수출 비중은 85.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의 기말재고량은 565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8.6%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3% 포인트 줄어든 3.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세계 대두박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0.3% 줄어 들지만 소비량은 0.1%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된다. 교역량은 생산량의 35.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의 수출 비중이 85.2%에 이를 전망이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2	2009.1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54.16	158.44	158.99	158.03	△0.3	△0.6
공 급 량	160.26	164.72	165.18	164.21	△0.3	△0.6
소 비 량	152.23	157.71	158.34	157.94	0.1	△0.3
교 역 량	54.27	55.69	55.98	55.61	△0.1	△0.7
기말재고량	6.28	6.18	5.88	5.65	△8.6	△3.9
기말재고율(%)	4.1	3.9	3.7	3.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6, January 12, 2009.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2	2009.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496.31	506.70	513.18	517.77	2.2	0.9
기초재고량	75.68	75.39	78.59	78.69	4.4	0.1
생산량	420.63	431.31	434.59	439.08	1.8	1.0
미국	6.27	6.34	6.51	6.52	2.8	0.2
태국	18.25	19.30	19.50	19.50	1.0	0.0
베트남	22.92	24.38	23.50	23.50	△3.6	0.0
인도네시아	35.30	35.80	36.25	36.25	1.3	0.0
중국	127.20	130.22	130.90	135.10	3.7	3.2
일본	7.79	7.93	8.00	8.00	0.9	0.0
수입량	28.72	27.41	27.37	27.08	△1.2	△1.1
인도네시아	2.00	0.50	0.80	0.80	60.0	0.0
중국	0.47	0.25	0.33	0.33	32.0	0.0
일본	0.68	0.70	0.70	0.70	0.0	0.0
소비량	420.92	428.01	432.33	435.11	1.7	0.6
미국	4.10	3.97	4.02	4.06	2.3	1.0
태국	9.78	9.60	9.50	9.50	△1.0	0.0
베트남	18.78	19.51	19.04	19.04	△2.4	0.0
인도네시아	35.90	36.55	36.85	36.85	0.8	0.0
중국	127.20	127.45	128.00	130.50	2.4	2.0
일본	8.25	8.15	8.23	8.23	1.0	0.0
수출량	31.35	30.42	29.88	29.77	△2.1	△0.4
미국	2.92	3.45	3.39	3.23	△6.4	△4.7
태국	9.56	10.00	9.50	9.50	△5.0	0.0
베트남	4.52	4.65	5.20	5.20	11.8	0.0
기말재고량	75.39	78.69	80.85	82.66	5.0	2.2
미국	1.27	0.94	0.75	0.74	△21.3	△1.3
태국	2.51	2.22	2.73	2.73	23.0	0.0
베트남	1.39	2.01	1.47	1.57	△21.9	6.8
인도네시아	4.61	4.36	4.56	4.56	4.6	0.0
중국	35.92	37.94	39.87	41.57	9.6	4.3
일본	2.41	2.69	2.96	2.96	10.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6, January 12, 2009.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2	2009.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43.74	737.20	803.34	802.23	8.8	△0.1
기초재고량	147.64	127.01	119.36	119.37	△6.0	0.0
생산량	596.10	610.19	683.98	682.86	11.9	△0.2
미국	49.22	55.82	68.03	68.03	21.9	0.0
호주	10.82	13.04	20.00	20.00	53.4	0.0
캐나다	25.27	20.05	28.61	28.61	42.7	0.0
EU27	124.87	119.44	150.90	150.51	26.0	△0.3
중국	108.47	109.30	113.00	113.00	3.4	0.0
러시아	44.90	49.40	63.00	63.00	27.5	0.0
수입량	113.60	112.42	121.70	122.95	9.4	1.0
EU27	5.14	6.93	5.00	6.00	△13.4	20.0
브라질	7.62	7.00	7.00	7.00	0.0	0.0
북아프리카	16.30	21.67	20.20	20.20	△6.8	0.0
파키스탄	0.07	1.49	2.50	2.50	67.8	0.0
인도	6.72	1.88	0.00	0.00	△100.0	0.0
러시아	0.86	0.34	0.40	0.40	17.6	0.0
소비량	616.73	617.83	655.99	653.87	5.8	△0.3
미국	30.94	28.57	35.16	34.29	20.0	△2.5
EU27	125.50	117.74	131.50	131.50	11.7	0.0
중국	102.00	104.00	107.00	107.00	2.9	0.0
파키스탄	21.90	22.40	22.60	22.60	0.9	0.0
러시아	36.40	37.70	43.50	43.50	15.4	0.0
수출량	111.20	115.38	123.38	123.88	7.4	0.4
미국	24.73	34.40	27.22	27.22	△20.9	0.0
캐나다	19.43	16.12	19.00	19.00	17.9	0.0
EU27	13.87	12.23	19.00	19.00	55.4	0.0
기말재고량	127.01	119.37	147.35	148.36	24.3	0.7
미국	12.41	8.32	16.97	17.84	114.4	5.1
EU27	14.03	10.44	15.82	16.45	57.6	4.0
중국	38.45	40.96	44.99	44.99	9.8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6, January 12, 2009.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2	2009.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837.00	900.34	913.70	919.26	2.1	0.6
기초재고량	124.62	108.85	127.80	128.22	17.8	0.3
생산량	712.38	791.49	785.90	791.04	△0.1	0.7
미국	267.50	331.18	305.32	307.39	△7.2	0.7
아르헨티나	22.50	20.85	18.00	16.50	△20.9	△8.3
EU27	53.83	47.67	60.92	61.20	28.4	0.5
멕시코	22.35	22.65	24.00	25.00	10.4	4.2
동남아시아	16.81	18.69	18.45	18.45	△1.3	0.0
중국	151.60	152.30	160.00	165.50	8.7	3.4
수입량	91.01	96.58	79.69	76.94	△20.3	△3.5
이집트	4.83	4.15	4.30	4.00	△3.6	△7.0
EU27	7.06	14.02	2.00	2.00	△85.7	0.0
일본	16.71	16.61	16.50	16.50	△0.7	0.0
멕시코	8.94	9.56	9.00	8.00	△16.3	△11.1
동남아시아	3.96	3.15	3.80	3.70	17.5	△2.6
한국	8.74	9.32	7.20	7.20	△22.7	0.0
소비량	728.15	772.12	789.87	783.22	1.4	△0.8
미국	230.67	261.67	263.79	259.09	△1.0	△1.8
EU27	62.30	63.50	60.50	60.50	△4.7	0.0
일본	16.50	16.50	16.50	16.50	0.0	0.0
멕시코	30.70	32.00	32.50	32.50	1.6	0.0
동남아시아	20.70	21.30	21.88	21.78	2.3	△0.5
한국	8.83	8.64	7.30	7.30	△15.5	0.0
중국	145.00	149.00	158.00	158.00	6.0	0.0
수출량	93.80	95.47	80.39	76.88	△19.5	△4.4
미국	53.99	61.87	45.72	44.45	△28.2	△2.8
아르헨티나	15.31	15.00	10.50	9.00	△40.0	△14.3
중국	5.27	0.55	0.50	0.50	△9.1	0.0
기말재고량	108.85	128.22	123.83	136.03	6.1	9.9
미국	33.11	41.26	37.44	45.48	10.2	21.5
아르헨티나	1.66	0.56	0.56	0.56	0.0	0.0
EU27	7.38	4.97	5.32	5.67	14.1	6.6
중국	36.60	39.39	40.99	46.49	18.0	13.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6, January 12, 2009.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2	2009.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90.64	283.57	287.75	286.30	1.0	△0.5
기초재고량	53.09	62.68	53.10	53.10	△15.3	0.0
생산량	237.55	220.89	234.65	233.20	5.6	△0.6
미국	87.00	72.86	79.49	80.54	10.5	1.3
아르헨티나	48.80	46.20	50.50	49.50	7.1	△2.0
브라질	59.00	61.00	59.00	59.00	△3.3	0.0
중국	15.97	14.00	16.80	16.80	20.0	0.0
수입량	69.05	78.64	76.10	75.94	△3.4	△0.2
중국	28.73	37.82	36.00	36.00	△4.8	0.0
EU27	15.29	15.15	14.15	14.15	△6.6	0.0
일본	4.09	4.01	4.00	4.00	△0.2	0.0
소비량	225.51	229.62	232.58	231.11	0.6	△0.6
미국	53.47	51.57	51.10	50.31	△2.4	△1.5
아르헨티나	35.09	36.16	37.49	37.21	2.9	△0.7
브라질	34.02	34.82	34.51	34.51	△0.9	0.0
중국	46.12	49.82	51.87	51.87	4.1	0.0
EU27	16.09	16.14	14.86	14.88	△7.8	0.1
일본	4.31	4.22	4.26	4.26	0.9	0.0
멕시코	3.93	3.74	3.74	3.74	0.0	0.0
수출량	71.50	79.48	77.08	77.19	△2.9	0.1
미국	30.39	31.60	28.58	29.94	△5.3	4.8
아르헨티나	9.56	13.83	14.70	14.40	4.1	△2.0
브라질	23.49	25.36	25.25	25.25	△0.4	0.0
기말재고량	62.68	53.10	54.19	53.94	1.6	△0.5
미국	15.62	5.58	5.58	6.12	9.7	9.7
아르헨티나	22.61	21.77	22.78	22.19	1.9	△2.6
브라질	18.19	19.16	18.50	18.45	△3.7	△0.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6, January 12, 2009.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12	2009.1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60.26	164.72	165.18	164.21	△0.3	△0.6
기초재고량	6.10	6.28	6.19	6.18	△1.6	△0.2
생산량	154.16	158.44	158.99	158.03	△0.3	△0.6
미국	39.06	38.32	36.96	36.14	△5.7	△2.2
아르헨티나	26.06	27.07	28.10	27.86	2.9	△0.9
브라질	24.11	24.69	24.41	24.41	△1.1	0.0
인도	5.28	6.39	6.66	6.66	4.2	0.0
중국	28.47	31.28	32.39	32.83	5.0	1.4
수입량	52.53	54.86	55.02	55.00	0.3	0.0
EU27	22.21	24.07	22.80	22.80	△5.3	0.0
중국	0.03	0.20	0.20	0.20	0.0	0.0
소비량	152.23	157.71	158.34	157.94	0.1	△0.3
미국	31.18	30.08	29.48	28.67	△4.7	△2.7
아르헨티나	0.59	0.62	0.65	0.65	4.8	0.0
브라질	11.12	12.05	12.49	12.49	3.7	0.0
인도	1.85	1.92	1.84	1.84	△4.2	0.0
EU27	33.23	35.17	33.32	33.32	△5.3	0.0
중국	27.63	30.85	31.99	32.43	5.1	1.4
수출량	54.27	55.69	55.98	55.61	△0.1	△0.7
미국	7.99	8.42	7.62	7.62	△9.5	0.0
아르헨티나	25.63	26.80	27.42	27.37	2.1	△0.2
브라질	12.72	12.14	12.40	12.40	2.1	0.0
인도	3.46	4.79	4.80	4.80	0.2	0.0
기말재고량	6.28	6.18	5.88	5.65	△8.6	△3.9
미국	0.31	0.27	0.27	0.27	0.0	0.0
아르헨티나	1.52	1.17	1.20	1.01	△13.7	△15.8
브라질	1.91	2.59	2.28	2.26	△12.7	△0.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6, January 12, 2009.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만 톤, %

연도	생산량	공급량 <sup>1)</sup>	소비량 <sup>2)</sup>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75/76	123,682	143,575	121,682	15,228	21,893	18.0
1976/77	134,221	156,114	128,119	15,344	27,995	21.9
1977/78	131,952	159,946	132,149	16,054	27,798	21.0
1978/79	144,550	172,348	139,046	17,674	33,302	24.0
1979/80	140,994	174,296	141,523	19,410	32,773	23.2
1980/81	142,934	175,707	144,922	21,199	30,785	21.2
1981/82	149,058	179,844	146,431	21,412	33,413	22.8
1982/83	154,126	187,539	148,415	20,034	39,124	26.4
1983/84	150,914	190,038	155,043	21,178	34,996	22.6
1984/85	167,066	202,062	159,189	21,815	42,873	26.9
1985/86	168,284	211,157	159,257	17,912	51,900	32.6
1986/87	170,389	222,289	164,934	19,140	57,356	34.8
1987/88	164,201	221,556	168,651	21,801	52,906	31.4
1988/89	159,008	211,913	166,754	22,709	45,159	27.1
1989/90	170,815	215,974	171,819	22,658	44,155	25.7
1990/91	181,009	225,164	175,502	21,722	49,663	28.3
1991/92	172,385	222,048	173,174	22,671	48,874	28.2
1992/93	179,640	228,514	176,166	22,649	52,348	29.7
1993/94	171,972	224,320	175,768	21,374	48,552	27.6
1994/95	176,110	224,662	176,845	21,638	47,817	27.0
1995/96	171,225	219,042	175,315	21,714	43,727	24.9
1996/97	187,254	230,981	182,311	21,951	48,670	26.7
1997/98	187,817	236,487	182,396	21,724	54,092	29.7
1998/99	187,555	241,647	183,590	22,072	58,057	31.6
1999/00	187,217	245,274	186,542	24,419	58,732	31.5
2000/01	184,276	243,008	186,326	23,355	56,682	30.4
2001/02	187,411	244,094	190,226	23,951	53,868	28.3
2002/03	182,085	235,953	191,293	24,136	44,660	23.3
2003/04	186,219	230,879	194,990	24,043	35,890	18.4
2004/05	204,447	240,275	199,470	24,112	40,814	20.5
2005/06	201,720	242,170	203,159	25,347	39,011	19.2
2006/07	200,530	239,391	205,285	25,996	34,106	16.6
2007/08(E)	211,908	246,014	210,591	26,959	35,422	16.8
2008/09(P)	222,436	257,858	210,912	25,846	40,946	18.9

주: E(추정치), P(전망치)

(1) 공급량=전년도 재고량+생산량, (2)소비량=공급량-재고량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참고자료

<http://www.usda.gov/oc/commodity/wasde/latest.pdf>

#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9. 1)\*

이 형 우

지난 1월 22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의 축산물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09년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고 계란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1. 쇠고기

2008년에는 가뭄 발생과 사료곡물 가격상승, 송아지 가격하락으로 암소 도축이 증가하였다. 2008년 소 도축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송아지 도체 중의 감소로 송아지 고기 생산량은 3% 증가에 그쳤다.

미국 내 암소 사육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산 암소 수입 증가로 2008년 미국의 암소 도축은 전년보다 6% 증가하였다. 2003년 5월 캐나다의 광우병 발병으로 중단된 암소 수입은 2007년 11월에 재개되었다. 그 결과 2003년 5월부터 2007년 11월 중순까지 암소 도축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가뭄 발생과 사료곡물 가격의 상승, 송아지 가격 하락으로 암소도축이 증가하였다. 또한 도축증가로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암소 사육두수가 감소하여 향후 2010~11년의 쇠고기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송아지 도축은 2007년 수치를 초과하였으며 이 값은 2006년보다 7%가 높은 값이다. 2008년 12월 27일까지의 송아지 도축두수는 2007년보다 25%가 높았다. 이러한 수준의 송아지 도축이 지속될 경우 2009년 비육밀소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소 도축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송아지 도체중의 감

\* 본 내용은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2008년 11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lhw0906@krei.re.kr, 02-3299-4309)

소로 송아지 고기 생산량은 3% 증가에 그쳤다.

미국에서 송아지 고기는 주로 호텔과 레스토랑에 소비된다. 과거 기록으로 볼 때, 송아지 도축 및 송아지 고기 생산은 50년대 이후 대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왔다. 2008년의 송아지 고기 생산량 증가가 이러한 송아지 고기 생산의 장기 하향 추세를 거스르는 것인지 명확히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2008년도 암소 및 송아지 도축 증가로 비육밀소가 감소하여 2009년 쇠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년간 암소 도축두수가 증가한 것은 향후 송아지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송아지 생산 감소는 2010년 이후 쇠고기 생산도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암소 사육두수가 적정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 2008년 비육우 경영비 마이너스 추경

알팔파를 제외한 사료 곡물 가격은 2008년 여름기간 내내 최고점을 보였으며 추수철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여름에 비육되어 10월에 출하된 비육우의 경우 사료비용이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비육우 판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08년 12월까지 비육우 경영비는 마이너스 값을 보였다.

2008년도에는 도축두수 중 암소(경산우) 도축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경산우 도체중은 일반적으로 거세우나 미경산우보다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2008년에 도축된 경산우의 도체중은 2007년 수치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의 비육우의 평균 도체중이 전년 동기대비 높은 값을 보였으나, 11월을 전후해서는 전년 동기대비 낮은 값을 보였다. 따라서 2008년 쇠고기 생산량은 전반기에는 2007년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2007년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2008년 쇠고기 총생산량은 2007년과 거의 변화가 없다.

알팔파를 제외한 사료 곡물 가격은 2008년 여름기간 내내 최고점을 보였으며 추수철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여름에 비육되어 10월에 출하된 비육우의 경우 사료비용이 크게 상승하였다.

### 도소매가격 하락

경제침체가 심화되면서 호텔 및 레스토랑 소비가 감소하면서 2008년 하반기부터 초이스급 쇠고기 가격은 하락하였고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는 셀렉트 및 그 이하급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초이스급과 셀렉트급의 가격 격차가 좁혀지게 되었다.

2008년 초이스급 쇠고기의 소매가격은 파운드당 4.1달러로 8월에는 4.5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8월 최고점을 보인 이후 도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매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하여 9월에는 4.51달러, 12월에는 4.38달러로 하락하였다.

### 원율변화로 캐나다산 생우 수입 감소

2008년 4분기 생우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곡물가격 상승과 캐

나다 달러화 강세로 송아지 수입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2007년 후반~2008년 초반의 캐나다 달러화 강세로 캐나다에서 생산된 쇠고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다. 미국은 캐나다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미국 달러화의 약세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쇠고기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캐나다산 생우 수입이 증가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는 캐나다에서 쇠고기를 생산하여 수입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도축하여 쇠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의 캐나다산 생우 수입이 증가하면서 캐나다의 비육우 사육두수는 2007년 9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4분기에 수입된 캐나다산 생우는 전년 동기보다 63% 증가하였으며 2007년은 전년대비 36% 증가하였다.

캐나다산 비육우 수입 증가세는 2008년 봄까지 미국과 캐나다 달러화의 환율이 점차 안정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생우 교역은 여름기간에는 거래두수가 감소하나 방목 시기에는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증가하던 비육우 수입두수가 2008년 여름에는 둔화되었으나 2008년 9월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9월 하순 및 10월부터 비육우 수입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미국달러가 캐나다 달러에 비해 강세를 보였으며 여름이 지나면서 옥수수 및 보리의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변화로 캐나다에서 생산된 쇠고기를 구입하는 것이 보다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2007년 4분기부터 2008년 2분기까지 거세우 및 미경산우 도축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하반기에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이유는 미국에서 2008년 9월부터 원산지 표시제(COOL: Country of origin Labeling)를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으로 가공업자들은 캐나다산 비육우 구매방식을 바꾸어야 했다. 그러나 2008년 10월 이후 미국달러가 캐나다 달러에 대해 강세를 보이면서 거세우 및 미경산우 수입은 더 크게 감소하였다. 캐나다의 사육두수는 2006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2009년에는 전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미국의 생우 수입은 2007년보다 10% 감소한 225만두로 전망된다. 생우 수입 감소세는 캐나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미국의 생우 수입두수는 210만두로 전망된다.

## 미국의 쇠고기 수출 원만이 증가

11월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1억 3,600만 파운드였다. 쇠고기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이었던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은 11월에 감소하였다. 일본으로의 쇠고기 수출은 전년대비 11% 증가하였으며 9월 대비 44%, 10월 대비 51%가 증가하였다. 저장창고 부족과 경제침체, 한국원화의 약세로 한국으로의 수출은 전월대비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베트남, 중동, EU로의 수출이 작년부터 증가하고 있어 주요 수출국의 수출 감소분을 상쇄시

생우 수입 감소세는 캐나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2009년 미국의 생우 수입두수는 210만두로 전망된다.

키고 있다.

2008년 쇠고기 수출은 18억 7,500만 파운드로 예상되며, 2009년 수출은 19억 2,000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멕시코, 일본, 한국 등의 쇠고기 수요 감소는 200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쇠고기 수입 증가

미국의 11월 쇠고기 수입은 2억 600만 파운드로 전년보다 11% 증가하였다. 호주산 쇠고기 수입은 지난 몇 달간 크게 감소하였는데 러시아의 경제위기로 러시아에 수출되는 호주산 쇠고기 물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호주산 쇠고기는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을 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쇠고기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호주의 주요 수출국으로 남아있다. 미국 달러화 강세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9% 감소한 24억 8,200만 파운드가 예상되며 2009년 수입량은 전년대비 8% 증가한 26억 8,000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수요 감소로 기타 국가의 쇠고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 낙농

유제품 수요 감소로 유제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유 가격 하락으로 유사비(우유/사료)가 낮아져 낙농가의 수익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연평균 젖소 사육두수는 920만두로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두당 산유량은 20,620파운드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두당 산유량 증가로 2009년 원유 생산량은 1,905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 가격이 하락세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우유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2009년 유사비는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 유제품 수요는 약세로 전망되는데 음식점 판매가 감소하고 고가의 유제품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만약 유제품의 가정 내 소비 비중이 높아진다면 유제품 수요를 지지해 줄 수 있다.

유장을 제외한 2008년 유제품 생산량은 1년 전보다 증가하였으며 체고도 높은 수준이다. 유제품의 국내 수요가 부진한데다 2009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 해외 생산량 증가, 달러화 강세로 유제품 수출량이 감소할 전망이어서 유제품의 미국 내 공급 증가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지분유 수출량은 2008년 91억 파운드에서 2009년 67억 파운드로 감소할 전망이고 탈지분유 수출량은 2008년 265억 파운드에서 2009년 235억 파운드로 감소할 전망이다. 유제품 수출 약세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은 미국 내 원유 사용량을 늘리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09년 유제품 가격은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2008년 치즈 가격은 파운드당

유제품 수요 감소로 유제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유 가격 하락으로 유사비(우유/사료)가 낮아져 낙농가의 수익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895달러에서 2009년에 1.260~1.340달러로, 2008년 버터 가격은 파운드당 1.436달러에서 2009년에 1.160~1.270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탈지분유 가격은 2008년에 파운드당 1.226달러에서 2009년에 84~90센트로, 유장 분말 가격은 2008년 파운드당 25.0센트에서 2009년에 18.0~21.0센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2009년 원유 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원유 IV등급 가격은 2008년에 100파운드당 14.65달러에서 2009년 10.00~10.90달러로 전망되며, 원유 III등급 가격은 100파운드당 17.44달러에서 2009년에는 10.60~11.40달러로 하락할 전망이다. 2009년 평균 원유 가격은 100파운드당 11.80~12.60달러로 2008년 18.34달러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양돈

2008년 하반기 비육돈 생산 감소와 2009년 상반기 분만 모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캐나다로부터의 생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2009년 미국의 돼지 도축두수는 감소할 전망이다.

2008년 하반기 비육돈 생산 감소와 2009년 상반기 분만 모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캐나다로부터의 생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2009년 미국의 돼지 도축두수는 감소할 전망이다. 2009년 모돈의 산자수는 증가할 전망이지만 증가율은 2008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며, 사료비 하락 예상은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 폭 완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축두수 감소로 2009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1.4% 감소한 230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미국과 돼지고기 주요 수입국에서의 경기 침체로 돼지고기 수요는 줄어들 전망이다.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2009년 돼지고기와 돼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에서의 돼지고기 소비 감소로 가격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돼지 가격은 100파운드당 47~51달러로 2008년보다 2.4% 상승할 전망이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돼지고기 수출 감소분과 재고 변화를 감안하면 미국의 2009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49.9파운드로 2008년보다 0.7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이 14% 감소할 것으로 보여 내수용 돼지고기는 증가할 전망이다. 내수용 돼지고기 공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체재인 쇠고기, 닭고기의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비교적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2009년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파운드당 2.9달러대로 높은 수준이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2008년 하반기(3달러) 보다는 낮을 전망이다.

2008년 11월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월대비 0.5% 증가한 3억 4,470만 파운드였다. 일본, 멕시코, 캐나다로의 수출량은 각각 13%, 58%, 8% 증가했지만, 러시아, 한국, 중국으로의 수출량은 각각 36%, 33%, 89% 감소하였다. 2007년 11월 돼지고기 수출량은 생산량의 17%를, 2008년 11월에는 18%를 차지하였다.

2008년 11월 미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7년 11월 6% 감소한 6,920만 파운드

였다. 미국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 중, 덴마크산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덴마크에서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11월 덴마크산 수입량이 전년 동월보다 47%나 감소하였다. 반면 캐나다산 수입량은 전년 동월보다 7% 증가하였다.

11월 미국의 생돈 수입량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량 감소로 전년 동월보다 31% 감소한 68만 3천두였다. 전체 수입 두수 중 81.3%를 차지하는 육성돈(50kg이하) 수입 두수는 전년 동월보다 12% 감소하였으며, 비육돈(도축 전) 수입 두수는 전년 동월보다 65% 감소하였다.

#### 4. 닭고기

2008년 4분기 평균 주간 입란(入卵) 수는 전년 동기보다 7.3% 감소한 1억 9천 8백 만개였으며, 발생(發生)된 병아리 생산수수는 6.7% 감소한 1억 6천 1백 만수였다. 이는 도계수수 감소로 이어져 4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2007년 동기보다 4% 감소한 89억 파운드였다. 2008년 닭고기 생산량은 2007년보다 2% 증가하는데 그친 369억 파운드였다.

2008년 11월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12.0% 감소한 26억 6천만 파운드였다. 이러한 큰 폭의 감소는 도계수수가 2007년 동월보다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도계수수가 전년보다 12% 감소한 반면 생체중은 5.61파운드로 전년보다 다소(1% 미만) 감소하였다. 12월 닭고기 생산량은 도계 작업일수가 2일 추가되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계수수 증감에 따라 닭고기 생산량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생체중은 2007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말 냉동 닭고기 재고는 7억 9천만파운드로 10월보다는 3천 6백만 파운드 증가하였고 2007년 동기대비 15% 증가한 것이다. 통닭 재고량이 2천 5백만만 파운드로 10월보다 4%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11월 통닭 가격은 전년보다 15% 상승하였다. 10월과 11월 냉동 재고량다리, 다리살, 넓적다리살, 1/4 다리살 등)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08년 말 재고는 2007년 말보다 9천 1백만 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 생산량 감소로 2009년 재고량은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11월과 12월에 가슴살과 다리살 가격이 서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3분기까지의 닭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2분기 중반 이후 가슴살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다리살 가격이 상승한 것은 수출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10월과 11월 닭고기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슴살 가격이 강세를 보였으며, 수출 감소로 다리살 가격이 하락하였다. 향후 7개월 동안의 가슴살 가격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2008년 10월 닭고기 수출량은 6억 7천만 파운드였으며 11월은 이보다 크게 감소

2008년 닭고기 생산량은 2007년보다 2% 증가하는데 그친 369억 파운드였다. 닭고기 생산량 감소로 2009년 재고량은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5억 4천만 파운드였다. 이러한 수출 감소는 10월 중순 이후 다리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11월 대 러시아 닭고기 수출량은 2007년보다 29% 감소한 1억 5천만 파운드였다. 부분적으로 대 멕시코와 중국으로의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각각 52%, 48% 증가하였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닭고기 수출 수요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 5. 계란

2009년 상반기 계란 생산량은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총 계란 생산량은 2008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의 계란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도매가격은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4분기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2008년 4분기 뉴욕시장의 A등급 도매 가격(대란)은 1.21\$(12개 들이)로 2007년 동기보다 14% 하락하였으나 최근 5년 평균인 99센트보다는 상승하였다. 2008년 계란 도매가격은 2007년보다 13센트 상승한 1.28\$였으며 4분기 계란 가격은 10월 1.19\$, 11월 1.24\$, 12월 1.30\$로 점차 상승하였다. 2009년 상반기 계란 생산량은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총 계란 생산량은 2008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의 계란 수출량은 2007년 동기보다 29% 감소한 1억 6천 만판이었으며 2008년 계란 수출량은 전년대비 17% 감소한 2억 8백 만판이었다. 이러한 계란 수출 감소의 원인은 미국 내 계란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LDP-M-175/Jan 22, 2009> 발췌정리



표 1 U. S. 육류 및 가금류 전망

구 분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산량, 백만 파운드										
-쇠고기	6,371	6,897	6,911	6,380	26,559	6,260	6,770	6,970	6,540	26,540
-돼지고기	6,023	5,593	5,633	6,110	23,359	5,915	5,464	5,550	6,105	23,125
-양고기	46	43	41	42	172	43	44	40	42	169
-닭고기	9,108	9,432	9,455	8,900	36,895	8,750	9,250	9,225	9,150	36,325
-칠면조고기	1,541	1,565	1,571	1,575	6,252	1,495	1,510	1,510	1,555	6,070
-전체 육류	23,258	23,712	23,796	23,174	93,940	22,628	23,154	23,466	23,558	93,806
-계란, 백만판/12개	1,590	1,581	1,601	1,630	6,402	1,580	1,580	1,610	1,650	6,420
1인당 소비량, 파운드										
-쇠고기	15.6	16.3	15.7	15.0	62.6	15.0	16.0	16.1	15.2	62.3
-돼지고기	12.6	11.7	12.0	12.9	49.2	13.0	12.3	12.0	12.6	49.9
-양고기	0.3	0.3	0.2	0.2	1.0	0.3	0.2	0.2	0.3	1.0
-닭고기	21.2	21.4	21.0	20.3	83.8	20.3	21.2	21.3	20.8	83.7
-칠면조고기	4.0	4.1	4.3	5.6	17.8	4.1	4.3	4.2	5.2	17.7
-전체 육류	54.0	54.2	53.8	54.3	216.3	53.1	54.4	54.4	54.5	216.4
-계란, 개수(백만더즌)	61.8	61.3	61.9	63.3	248.3	60.7	60.3	61.5	62.8	245.3
시장가격										
-초이스급 거세우(Neb,\$/cwt)	89.59	92.82	98.45	88.22	92.27	89-93	92-98	90-98	91-99	91-97
-비옥밀스(Ok City,\$/cwt)	99.88	106.60	110.81	94.62	102.98	95-99	98-104	102-110	104-112	99-107
-유틸리티급 정육(S. Falls,\$/cwt)	53.88	57.30	61.78	46.70	54.92	46-52	49-53	51-55	51-55	49-53
-초이스급 양고기(San Angelo,\$/cwt)	86.23	79.62	88.83	85.50	85.05	84-88	86-90	82-90	84-92	83-91
-돼지고기(N. base, l.e. \$/cwt)	39.64	52.51	57.27	41.92	47.84	46-48	48-52	51-54	45-49	47-51
-닭고기(12도시, cents/lb)	78.10	80.60	80.60	79.40	79.70	81-85	82-88	83-89	80-86	81-87
-칠면조고기(동부, cents/lb)	77.4	88.90	96.50	87.30	87.50	74-78	81-87	88-96	86-94	83-88
-계란(뉴욕, cents/doz)	158.8	117.30	114.50	120.50	127.80	124-130	115-123	111-121	123-133	117-127
교역량, 백만 파운드										
-쇠고기 수출량	360	471	609	435	1,875	425	505	500	490	1,920
-쇠고기 수입량	637	661	584	600	2,482	625	710	690	655	2,680
-양고기 수입량	52	48	38	44	182	50	43	40	48	181
-돼지고기 수출량	1,106	1,387	1,126	1,150	4,769	900	950	1,000	1,250	4,100
-돼지고기 수입량	217	205	191	200	813	220	210	205	215	850
-닭고기 수출량	1,507	1,787	1,912	1,525	6,731	1,475	1,550	1,525	1,600	6,150
-칠면조 고기 수출량	148	160	186	160	654	135	145	160	165	605
-모든 수입두수(천두)	2,915	2,149	2,201	1,850	9,115	1,850	1,850	1,750	1,750	7,200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2 낙농업 전망

구 분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젖소 (천두)	9,249	9,274	9,277	9,275	9,269	9,265	9,250	9,230	9,215	9,240
두당 산유량 (파운드)	5,140	5,249	5,048	5,020	20,457	5,140	5,300	5,100	5,080	20,620
우유 생산량 (십억 파운드)	47.5	48.7	46.8	46.6	189.6	47.6	49.0	47.1	46.8	190.5
- 농가소모분	0.3	0.3	0.3	0.3	1.2	0.3	0.3	0.3	0.3	1.2
- 납유량	47.3	48.4	46.5	46.3	188.4	47.3	48.7	46.8	46.5	189.4
유지방 (원유 환산, 십억 파운드)										
- 납유량	47.3	48.4	46.5	46.3	188.4	47.3	48.7	46.8	46.5	189.4
- 연초 재고량	10.4	12.1	13.6	11.5	10.4	10.1	11.0	12.8	11.1	10.1
- 수입량	1.0	0.7	0.7	1.0	3.4	0.9	0.7	0.8	1.1	3.4
- 총공급량	58.6	61.3	60.8	58.8	202.2	58.3	60.4	60.3	58.7	202.8
- 수출량	2.2	2.5	2.5	1.9	9.1	1.8	1.7	1.6	1.6	6.7
- 연말 재고량	12.1	13.6	11.5	10.1	10.1	11.0	12.8	11.1	9.5	9.5
- 소모분	0.0	0.0	0.0	0.0	0.0	0.1	0.2	0.1	0.0	0.4
- 집유량	44.2	45.1	46.9	46.8	183.0	45.4	45.8	47.4	47.6	186.2
전지방유 (원유환산, 십억 파운드)										
- 납유량	47.3	48.4	46.5	46.3	188.4	47.3	48.7	46.8	46.5	189.4
- 연초 재고량	9.9	10.1	10.6	10.2	9.9	10.5	10.0	10.6	10.1	10.5
- 수입량	1.0	0.8	0.8	1.1	3.6	0.8	0.8	0.8	1.0	3.4
- 총공급량	58.1	59.3	58.0	57.5	202.0	58.7	59.5	58.2	57.6	203.3
- 수출량	6.7	7.6	6.9	5.3	26.5	6.0	5.9	5.8	5.8	23.5
- 연말 재고량	10.1	10.6	10.2	10.5	10.5	10.0	10.6	10.1	10.2	10.2
- 소모분	0.0	0.0	0.0	1.3	1.3	1.3	1.4	0.7	0.6	3.9
- 집유량	41.4	41.1	40.9	40.3	163.7	41.4	41.6	41.6	41.1	165.7
우유가격 (달러/100 파운드) 1)										
- 우유	19.23	18.57	18.67	18.90	18.34	11.75	10.80	11.50	13.15	11.80
						-12.15	-11.50	-12.50	-14.15	-12.60
- III 등급	18.12	18.40	17.28	15.95	17.44	9.75	9.84	10.87	12.03	10.60
						-10.15	-10.54	-11.87	-13.03	-11.40
- IV 등급	15.04	15.25	16.23	12.07	14.65	9.41	9.56	10.28	10.74	10.00
						-9.91	-10.36	-11.38	-11.84	-10.90
유제품 가격 (달러/파운드) 2)										
- 체다 치즈	1,933	1,977	1,869	1,804	1,895	1,187	1,185	1,280	1,393	1,260
						-1,227	-1,255	-1,380	-1,493	-1,340
- 유장 분말	0.305	0.267	0.243	0.186	0.250	0.163	0.175	0.185	0.195	0.180
						-0.183	-0.205	-0.215	-0.225	0.210
- 버터	1,230	1,411	1,575	1,527	1,436	1,072	1,107	1,218	1,245	1,160
						-1,142	-1,207	-1,348	-1,375	-1,270
- 탈지방유	1,364	1,300	1,334	0,904	1,226	0,810	0,810	0,845	0,885	0,840
						-0,850	-0,870	-0,915	-0,955	-0,900

주: 1) 매월 가격을 단순 평균한 가격으로써 연평균과 다를 수 있음.

2) AMS에서 각 등급별 가격을 취합한 뒤 합산한 값임.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3 생산 지표

구 분	단위	2007. 12월	2008		
			10월	11월	12월
비육우					
사육두수 /*	1,000 두	12,099	10,415	10,972	11,346
입식두수	1,000 두	1,643	2,371	1,949	1,571
출하두수	1,000 두	1,645	1,814	1,575	1,683
육계					
입란물량 /1	1,000 개	677,856	606,189	585,025	629,093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821,281	742,121	705,587	779,160
종계수수	1,000 수	55,995	53,153	53,311	52,707
6개월 미만 종계수수 /1	1,000 수	7,248	6,839	7,026	6,580
종계 도태수수 /2	1,000 수	5,417	7,919	6,135	5,949
칠면조					
입란물량 /1	1,000 개	30,231	28,679	27,490	27,754
새끼칠면조 생산수수	1,000 수	24,091	22,165	20,702	23,020
계란					
생산량 /2	백만 더즌(12개)	554.5	546.2	539.2	559.3
산란용 마리수 /1	1,000 수	285,677	277,299	280,880	284,993
산란율 /1	%	75.5	75.7	75.7	76.6
실용계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35,866	39,998	36,607	36,393
노계 도태수수 /2	1,000 수	5,339	5,857	4,439	5,527

주: 1) /\* 조사대상은 1,000두 이상 사육농가임.  
 2) /1 월초 기준임.  
 3) /2 월말 추정량임.

표 4 소득 추정표 - 비육우

단위: 센트/파운드

구 분	2008. 1월	2008		
		11월	12월	09.1월 /*
대평원주 비육장 기준				
손익분기점 /*	104.66	114.20	109.71	107.94
판매가격	92.45	91.06	85.70	84.25
순이익	-12.21	-23.14	-24.01	-23.69

주: /\* Does not include capital replacement cost.

표 5 소득 추정표 - 가금류

단위: 1998 ~ 2000=100

구 분	2008. 1월	2008		
		11월	12월	09.1월 /*
육계(지수)				
사료비	144.3	178.9	141.8	139.3
시장가격	127.9	122.2	117.6	122.3
이윤(가격-비용)	122.1	102.1	109.1	116.3
칠면조(지수)				
사료비	142.4	199.6	197.3	151.1
시장가격	111.7	133.3	114.2	108.7
이윤(가격-비용)	97.7	103.1	76.4	89.4
계란(지수)				
사료비	171.0	153.7	149.1	145.8
시장가격	205.2	159.0	158.8	163.5
이윤(가격-비용)	223.1	161.8	163.8	172.7

주: /\* 추정치임.

표 6 육류 통계

구 분	2007.1 ~2008.1	2008.1 ~2009.1	2008 9월	10월	11월	12월	2009.1월
육류 생산량(백만파운드)							
- 쇠고기	2,232	2,086	2,270	2,342	1,961	2,082	2,086
- 송아지고기	11	12	13	13	11	13	12
- 돼지고기	2,158	2,009	1,976	2,160	1,887	2,052	2,009
- 양고기	15	14	14	15	13	15	14
적색육 전체	4,416	4,121	4,273	4,530	3,872	4,163	4,121
- 육계	3,230	2,939	3,150	3,272	2,665	2,932	2,939
- 기타 계육	46	47	49	51	39	40	47
- 칠면조육	547	498	516	584	510	491	498
백색육 전체	3,823	3,484	3,714	3,906	3,214	3,462	3,484
전체 육류 생산량	8,239	7,605	7,987	8,437	7,086	7,625	7,605
도축두수(천두)							
소	2,898	2,631	2,889	2,991	2,519	2,671	2,631
- 거세우	1,415	1,255	1,444	1,424	1,156	1,295	1,255
- 미경산우	882	780	849	916	792	811	780
- 경산우	315	295	308	354	312	293	295
- 젖소	240	265	228	241	212	233	265
- 비거세우	46	36	60	56	47	39	36
- 송아지	72	86	88	96	81	94	86
양	213	205	221	225	194	231	205
돼지	10,557	9,897	9,969	10,747	9,325	10,145	9,897
- 비육돈	10,209	9,570	9,383	10,394	9,044	9,839	9,570
- 모돈	306	295	293	313	249	273	295
육계	785,893	715,150	753,812	778,136	639,120	709,846	715,150
칠면조	22,698	20,875	22,700	25,339	23,048	20,867	20,875
구 분	2008. 1월	2008. 9월	10월	11월	12월	2009. 1월	
정육량 (파운드)							
소	775	790	789	784	785	781	
송아지	159	146	142	139	142	139	
양	70	66	68	68	68	69	
돼지	205	199	201	203	203	204	
재고 입고량 (백만파운드)							
쇠고기	482.5	434.0	448.1	465.1	474.9	481.7	
돼지고기	458.7	486.6	507.7	510.8	512.8	549.0	
- 내장	54.7	31.9	21.3	21.7	33.5	51.7	
- 햄	49.0	141.6	161.0	136.8	90.8	63.3	
닭고기	741.1	755.4	759.3	787.9	811.1	764.0	
칠면조고기	260.6	629.2	621.5	578.0	360.4	398.1	
냉동달걀	14.7	20.8	21.9	22.4	21.3	22.8	

표 7 생축 가격

구 분	2008. 1월	2008. 9월	10월	11월	12월	2009. 1월
소 (100파운드당 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 1,100 ~ 1,300 파운드급						
텍사스 팬헨들	92.45	98.94	91.94	91.06	85.70	84.25
네브라스카	88.63	97.37	90.61	90.40	83.66	82.50
- 암소(수풀스지역)						
유틸리티급 1,200 ~ 1,600파운드	53.55	62.69	55.70	46.63	45.58	48.50
유틸리티급 800 ~ 1,200파운드	50.00	59.00	53.60	44.75	41.75	44.00
- 비육암소(오클라호마)						
• 거세우						
1) 500 ~ 550 파운드	119.36	119.10	108.44	107.85	99.37	109.25
2) 600 ~ 650 파운드	105.21	110.05	97.82	97.25	90.42	99.10
3) 750 ~ 800 파운드	97.45	108.79	96.54	97.81	89.51	93.25
• 미경산우						
1) 450 ~ 500 파운드	109.41	107.25	95.91	92.66	86.11	95.10
2) 700 ~ 750 파운드	93.78	102.60	89.01	90.19	82.89	88.00
돼지 (100파운드당 가격)						
- 비육돈						
·살코기 51 ~ 52% 기준	36.77	52.76	47.06	38.90	39.80	40.50
- 모돈						
·아이오와 #1-2, 300 ~ 400파운드	21.60	52.40	46.55	33.95	41.51	51.00

표 8 곡물 및 사료가격

구 분	2008. 1월	2008. 9월	10월	11월	12월	2009. 1월
곡물(\$/부셸)						
- 옥수수, #2 Yellow, Cen. III	4.55	N/A	N/A	N/A	N/A	N/A
- 밀, HRW Ord., K.C. (\$/부셸)	9.63	N/A	N/A	N/A	N/A	N/A
사료(\$/톤)						
- SBM, 48% Solvent, Decatur	331.28	0.00	0.00	N/A	N/A	N/A
- 알팔파, U.S. Avg.(\$/톤)	135.00	176.00	172.00	163.00	155.00	N/A
- 건초, U.S. Avg.(\$/톤)	118.00	122.00	122.00	116.00	113.00	N/A

표 9 축산물 도매가격 현황

구 분	2008. 1월	2008. 10월	11월	12월	2009. 1월
쇠고기 (\$/100파운드)					
- 쇠고기 절단 포장육					
초이스급 1-3, 600 ~ 900 lb	146.41	148.03	153.29	144.42	147.25
셀렉트급 1-3, 600 ~ 900 lb	138.06	140.92	148.36	135.50	140.00
- 뼈없는 냉장 쇠고기, 90%	140.32	151.26	136.13	126.30	140.10
- 수입 냉동 쇠고기, 90%	137.50	153.30	131.50	129.94	130.25
- 가족 및 내장	9.97	N/A	N/A	N/A	N/A
돼지고기 (\$/100파운드)					
- 지육	56.71	67.81	57.28	58.03	57.00
- 등심, 14-19 lb Bl 1/4" trim	87.70	111.10	92.88	93.10	95.00
- 삼겹살, 12-14 lb skin on trmd.	75.56	N/A	57.25	61.25	69.00
- 후지, 20-23 lb Bl trmd, TS1	48.66	59.27	52.72	48.97	42.50
- 잡육, 72% fresh	38.51	53.21	57.00	35.46	38.00
육계 (센트/파운드)					
- 12개 도시 평균	75.91	77.65	78.51	82.01	81.75
- 조지아 독(Georgia dock)	76.59	86.07	85.59	86.04	86.50
- 북동부					
• 뼈없는 가슴살	128.33	108.96	100.49	110.14	125.00
• 뼈있는 가슴살	77.60	70.71	67.84	70.60	75.25
• 다리(전체)	61.67	61.88	41.56	44.39	52.50
• 다리(1/4도체)	42.30	51.63	29.99	28.39	34.50
계란, A등급, lg, 12개 기준					
- 12개 대도시 평균	150.03	108.91	116.25	116.09	119.50
- 뉴욕	157.43	119.23	123.78	124.81	127.00

표 10 육계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구 분	디케이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단위	달러/톤	달러/부셸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07년 11월	280.76	3.60	132.9	125.7	123.2
2007년 12월	314.78	4.01	134.4	121.9	117.5
2008년 1월	331.28	4.58	144.3	127.9	122.1
2008년 2월	345.88	4.87	156.9	132.6	124.0
2008년 3월	331.57	5.14	169.1	125.7	110.4
2008년 4월	329.94	5.58	176.4	120.8	101.2
2008년 5월	325.48	5.61	178.3	128.2	110.4
2008년 6월	370.92	6.56	185.2	126.7	106.1
2008년 7월	412.25	6.00	184.9	127.4	107.1
2008년 8월	355.35	5.04	208.3	126.0	97.0
2008년 9월	352.70	4.95	206.4	118.4	87.3
2008년 10월	260.66	3.66	180.8	123.1	102.8
2008년 11월	267.37	3.43	178.9	122.2	102.1
2008년 12월	268.24	3.29	141.8	117.6	109.1

표 11 계란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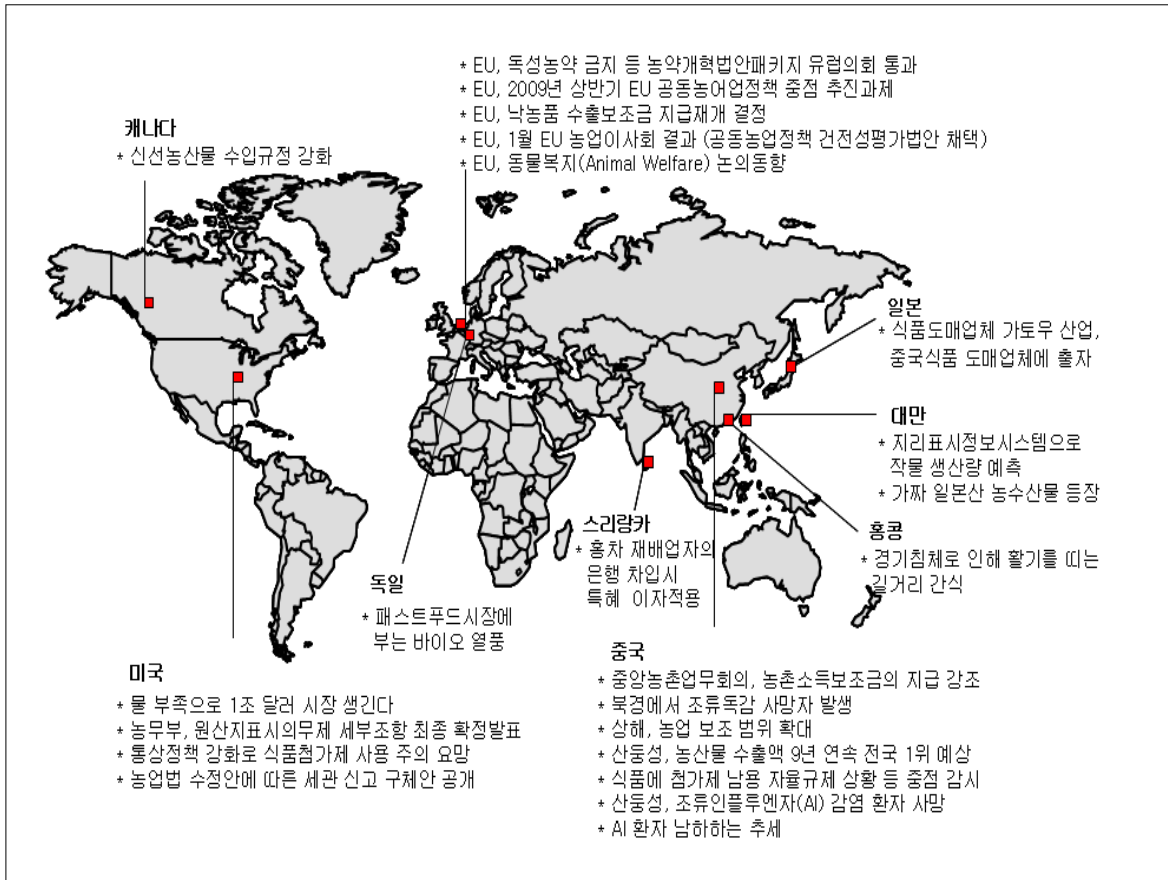
구 분	디케이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단위	달러/톤	달러/부셸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07년 11월	280.76	3.60	142.6	188.8	212.9
2007년 12월	314.78	4.01	155.4	209.0	237.0
2008년 1월	331.28	4.58	171.0	205.2	223.1
2008년 2월	345.88	4.87	187.6	202.6	210.5
2008년 3월	331.57	5.14	197.1	212.0	219.8
2008년 4월	329.94	5.58	201.4	165.3	146.5
2008년 5월	325.48	5.61	211.9	129.2	85.9
2008년 6월	370.92	6.56	211.9	153.2	122.5
2008년 7월	412.25	6.00	242.5	138.5	84.1
2008년 8월	355.35	5.04	235.5	146.4	99.9
2008년 9월	352.70	4.95	202.8	158.8	135.8
2008년 10월	260.66	3.66	200.1	149.0	122.3
2008년 11월	267.37	3.43	153.7	159.0	161.8
2008년 12월	268.24	3.29	149.1	158.8	163.8

# 세계 농업 브리핑

세계 농업 브리핑 (2009.1)



## 세계 농업 브리핑 (2009.1)\*



### 1. 아시아 / 오세아니아

#### ○ 일본, 식품도매업체 가토우 산업, 중국식품 도매업체에 출자

- 대형 식품도매업체인 가토우 산업은 스미토모(住友) 상사와 공동으로 2009.3월에 중국 남부의 대형 도매업체인 廣州華新商貿의 深圳지구 자회사에 40%를 출자할 예정이다. 深圳華新의 매출액은 2009년에 약 22억 엔, 2012년도에는

\* 세계 농업 브리핑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교통상부, 주유럽연합대표부 등 국내외 유관기관의 정보를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0억 엔을 목표로 하고 있음. 가토우 산업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도매업체가 배송업무로 한정되기 쉽고 매장도 가격 인하 경쟁에만 치중하기 쉬우므로 상품의 진열, 판매 데이터에 기초한 결품 방지와 상품개발을 소매업체에 제안하려고 함.

○ **중국, 중앙농촌업무회의, 농촌소득보조금의 지급 강조**

- 12.27~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농촌업무회의에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농촌주민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농업관련부처 및 사회복지부처의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적 경기침체가 7억 농촌인구의 생계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안정적인 식량가격 유지와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농민공의 재취업 지원임을 인식함. 회의를 주재한 후이량위(回良玉) 국무원 부총리는 농촌지역 주민의 연간 순소득이 8% 늘어나 4,700위안에 달해 최근 6%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올해 이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봄.

○ **중국, 상해 농업 보조 범위 확대**

- 2009.1.7일 상해 ‘三農’업무팀 확대회의에서는 작년에 신규 편성된 농업지원자금이 1.6억 위안에 달하며, 농민 전문 합작사 대출에 5,000만 위안의 담보 자금을 편성하는 등 농업 우대정책이 부단히 강화되었다고 밝힘. 올해 상해시는 농업 보조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보조 기준을 높이고 보조 방법을 개선하며 농촌 금융서비스 수준을 강화하기로 함. 또한 농촌 토지 승포제를 안정시키고 엄격한 경지 보호제도를 실행하며 농촌 노동력의 취업 훈련을 지원하는 등 농촌 개혁을 심화시킬 예정임.

○ **중국, 북경에서 조류독감 사망자 발생**

- 1.6일 북경시 위생국은 북경시에서 조류독감 감염으로 의심되었던 환자 1명이 집중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고 발표함. 북경시 질병예방 통제 센터와 군사의학과학원의 검사 결과, 환자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H5N1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사건 발생 후 북경시 정부는 긴급 방역, 통제 작업과 역학 조사를 지시함. 국가 위생부는 올해 조류 독감 발생 위험성이 크다며 가금류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위생에 힘쓸 것을 당부함.

○ **중국, 산둥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원자 사망**

- 산둥(山東)성에 사는 27세 여성이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음. 사망자 장 모씨는 지난 1.5일 발병해 현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17

일에 사망함. 중국 관련 부처는 이미 세계보건기구와 홍콩, 마카오, 대만의 위생보건부처에 관련 상황을 통보함. 이보다 하루 앞서 중국 당국은 산시(山西)성의 2세 영아가 AI에 감염되었다고 밝힘. 현재 이 영아는 산시성 타이위안(太原)의 아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시원까지 남아있는 추세**

- 1.6일 이후로 베이징(北京), 산시(山西), 산둥(山東), 후난(湖南) 등 지역에서 AI 환자 4명이 발생하여 그 중 3명은 이미 사망함. 전문가들은 발생 시간과 장소로 볼 때 AI 발병 분포가 한류를 따라 북쪽에서 뚜렷하게 남하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힘. 따라서 조만간 광둥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중국 인플루엔자센터 주임 수위에룡(舒躍龍)은 조류독감 인체 감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했으며, 앞서 발표된 AI 발병 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힘.

○ **중국, 산둥성 농산물 수출액 9년 연속 전국 1위 예상**

- 2008년 농업대성 산둥성의 농산물 수출액은 안정된 상승세를 보인 바, 9년 연속 전국 농산물 수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산둥성 농산물 수출액은 2000년에 30억 달러, 2007년에는 약 9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중국, 식품에 첨가제 남용 자율규제 상황 등 중점 감시**

- 1.13일 중국 중앙정부는 각 지방 단위에서 식품에 비식용물질들을 첨가하거나 식품첨가제 남용행위 등의 자체규제 실시여부를 중점 감시 감독하는 특별감사반을 전국 7개 지역 성(하북, 요녕, 강서, 광둥, 산둥, 사천, 섬서) 단위에 파견해서 감독 중이라고 발표함.
- 위생부와 농업부, 공업정보부, 상무부, 공상총국, 품질검사총국 및 식품약품관리국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편성 조직된 감독반은 2009.1.8일부터 1.18일까지 각 식품 및 식품첨가제 생산 기업, 각 판매단위, 음식점 및 지방단위에서 식품에 비식용물질들을 첨가하거나 식품첨가제 남용행위 등의 자체규제 실시여부를 중점 감시, 감독하기로 함.

○ **홍콩, 경기 침체로 인해 월기를 띠는 길거리 간식**

- 홍콩의 소비는 작년 초 평균 250억 홍콩달러를 유지하다가 작년 4사분기부터 약 15% 감소해 평균 210억 달러를 기록함. 2009년 홍콩의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며 일부 경제기관들은 홍콩의 2009년 소매시장 증가율을 -4.0%로 예상함.

-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감소로 미국 프랜차이즈 기업 크리스피 크랩(도너츠)은 작년 말 홍콩 내 매장을 철수했으며, 홍콩에 끊임없이 입점하던 신규 식품 브랜드도 불경기를 우려해 진출을 주저하고 있음. 반면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간식은 불경기를 맞아 인기를 더하고 있음. 홍콩은 기본적으로 간식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노점상 형태의 상점이 발달되어 있음. 또한 협소한 주거 공간으로 인해 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주로 면, 닭고기, 해산물 등임.

○ 대만, 가까 일본산 농수산물 등장

- 일본 농림수산성은 대만 시장 내 일본산 채소, 어류 등 농수산물을 가장한 가짜 일본산이 넘쳐난다고 지적함. 또 대만 업체들이 일본 상품 명칭을 그대로 상표로 등록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대만의 ‘공평교역위원회’등의 감시기관에 법적으로 고발할 것을 고려중에 있음.
- 일본 <湯姆林>사는 2008.11월 타이베이시 17개 대형유통매장 및 슈퍼마켓을 조사한 결과, 상품 포장에 일본 유명산지 생산품인 것처럼 표기하거나 일본 고급 식품 브랜드를 도용하는 모조품이 적지 않다고 발표함. 타이베이 과일 채소도매시장에서도 일본산인 것처럼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산 배 포장에 일본 지역이름이 표기되는가 하면 중국산 당근과 양파에 북해도 농협연합회(Hokuren) 또는 JA 북해도 미래농협연합회(JA Kitamirai)이라는 상표가 상자에 인쇄되어 판매되고 있음.

○ 대만, 지리표시정보시스템으로 작물 생산량 예측

-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금년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육묘장 정보를 이용해 주요 작물 생산량을 예측하여 가격 폭락 등의 문제에 조기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함. 예를 들어 특정면적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재배, 수확량을 체계적인 데이터로 나타냄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임. 단기 채소 작물의 경우, 생산량 보고에 의한 연간 생산량 예측이 어렵고 대부분 육묘장에서 종묘를 구매하기 때문에 국내 채소 육묘장 공급량을 바탕으로 각종 채소 생산량을 예측할 것이라고 함.

○ 스리랑카, 농가 개배업자의 은행가입시 특혜이자 적용

- 스리랑카 정부는 2008.12.30일에 유류 및 가스 가격 인하, 홍차 정부수매, 대통령 및 장관 등을 위해 책정된 비용 일부 삭감조치 등으로 약160억 루피(145백만 불상당)의 효과 유발이 예상되는 2009년도 경기 부양책을 발표함.

- 경기부양책(홍차 정부수매) : 홍차 재배업자의 은행 차입시 특혜이자적용 등 보호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국내생산업자의 보호를 위해 수입 홍차에 대해 세금 인상을 실시하며 국내산 홍차는 정부가 수매 조치할 예정임. 또한, 소규모 홍차 재배업자를 위해 50kg 복합비료를 1,000루피에 제공하며 국내생산 홍차잎은 kg당 45루피, 가공 홍차는 kg당 300루피의 가격 유지를 보장하기로 함.

## 2. 유럽

### ○ EU, 동물복지(Animal Welfare) 논의동향

- EU 집행위원회 보건총국, 통상총국은 2009.1.20~21일 세계동물보호협회(WSPA) 등 동물보호 관련 NGO 단체와 공동으로 ‘세계교역과 동물복지’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함. 동 컨퍼런스는 EU가 세계적으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축산물 교역에 동물복지개념을 포함시키려는 의도에서 마련됨.
- 농업전문지 AGRA-FACT는 EU 집행위원회가 2007년부터 계속되어 온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중 동물복지 라벨링에 대한 정책제안을 할 것이라고 보도함. EU 집행위원회는 동물복지 라벨링이 EU 축산물 생산자에게 새로운 판매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며 축산물 생산단계에서 동물복지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음.

### ○ EU, 독성농약 금지 등 농약개역법안패키지 유럽의회 통과

- 2009.1.13일 2006년부터 EU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농약 사용허가 규정 및 농약의 지속가능한 사용지침 등 농약 관련법안패키지가 유럽의회에서 표결 끝에 통과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농약 인허가 기준과 절차, 사용조건이 대폭 변화될 예정임.
- 2001년 EU 집행위원회는 EU 농약관련 지침(Directive 91/414)의 운용현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EU 집행위원회에 농약의 인허가 및 판매, 독성물질 제외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할 것을 요구하였고 EU 집행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농약관련법안패키지를 제안함. EU의 새로운 농약법규 제안을 두고 환경단체와 농민단체 및 농약제조업체간의 견대립이 지속되어 왔으며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서도 논란이 지속되

어 왔으나, 2009.1.13일 유럽의회에서 농약관련법안패키지가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됨.

○ EU, 1월 EU 농업이사회 결과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법안 채택)

- 2009.1.19~20일 EU 농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작년 11월 합의된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법안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국제포도주기구(OIV) EC 가입, 유전자변형 유채종자 및 카네이션 유통허용, 산림보호법안 등에 대해 논의함.
- 1.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법안 채택 : 2008.11월말 합의한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관련 3개 법안(regulation)을 토론없이 정식 채택함.
- 2. 체크 의장국 수입기간 중 농어업정책 우선순위 : 2009년 상반기 농업이사회 의장을 맡은 체크는 의장국 수입기간 중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미래 토의, 농산물 품질정책 토의, 조건불리지역 재정의, 공동농업정책 간소화, 동물복지, 산림법법별채법안 논의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함.
- 3. 국제포도주기구 (OIV<sup>1)</sup>) EC 가입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외에 EC가 국제포도주기구인 OIV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많은 회원국들의 정식 회원가입은 나중에 검토하자고 제안하여 합의하지 못함.
- 4. 유전자 변형 농산물 : 유전자변형 유채유지종자 T45, 유전자 변형 푸른 카네이션의 시장유통 승인건은 가중다수결로 가부가 결정되지 않음.
- 5. 불법 벌목 금지법안 : 불법 벌목 및 불법 벌목된 목재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유통업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불법벌목 금지법안에 대해 회원국들은 현행 국가 시스템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 EU, 낙농품 수출보조금 지급재개 결정

- 2006년부터 국제 낙농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EU 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보조하여 낙농품 수출을 증진시키는 수출보조금의 취지가 사라짐.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국제 낙농품 가격이 하락하고 EU 낙농품 수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은 낙농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재개를 요구하였음. 최근 국제낙농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EU 시장개입가격 이하로 떨어지자 EU 집행위원회는 2009.1.15일 역내 낙농품 수매와 낙농품 수출보조를 재개하기로 결정함.

1) OIV는 2001.4월 창설된 포도주 관련 국제기구로서 포도주 제조 관행 및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EU 회원국들은 대부분 회원국으로 활동중임. (영국, 덴마크, 폴란드, 라티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6개국 제외)

- EU는 2007년 낙농품 수출보조금을 중단하면서도 시장상황을 봐서 재도입 하겠다는 단서를 달은 바 있고 WTO 협정상 낙농품 수출보조금 지급한도 내에서 다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제통상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DDA 협상에서 EU는 2013년까지 모든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08년말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개혁시 우유생산쿼터 증량 및 폐지를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낙농분야 지원 대책은 EU가 지향하는 정책방향과는 다른 조치임.

○ EU, 2009년 상반기 EU 공동농어업정책 중점 추진과제

- 2009년 상반기 EU 의장국(Presidency)을 수임하는 체크가 발표한 EU 공동농업정책, 공동어업정책, 동물위생 중점 추진과제 및 의장국의 입장임.
- EU 공동농업정책 중점과제
  - ① 공동농업정책 개혁 및 농가 직접지불제의 미래 : 2009년 EU 중기재정 중간평가기간에 EU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농업부문 예산을 재검토하고 신규회원국과 기존 회원국간의 형평성을 강조함. 체크 의장국 수임기간 중 비공식 EU 농업각료회의 기간(5.30~6.2일)에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② 농산물 품질정책 논의 활성화 : EU 농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산물 품질정책 논의를 지지함. 전통특산물 인정(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 제도 유지여부, 지리적표시 등록절차, 별도 심사기구 설치, EU 로고, 원산지 표시 등의 이슈 논의를 촉진하기로 위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③ 공동농업정책 간소화(Simplification) : 불필요한 법규를 폐지하고 법규 이행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하며 상호준수의무 등을 이행하는 최적 관행을 공유하는 공동농업정책 간소화에 중점을 둬.
  - ④ 조건불리지역 범위 재정립 : 기후, 토양조건에 기초한 생태물리적 기준에 따라 기타 조건불리지역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지지하나 국가별로 자연조건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적용함에 있어 충분한 유연성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 동물위생: 동물과 사람간에 전염가능성이 있는 질병(조류 인플루엔자, 살모넬라 등), 전염성이 강한 동물질병(구제역, 광견병, 청설병, 돼지 콜레라 등)에 중점을 두고 제3국산 동물성 식품 수입이 사람 및 동물위생에 위협이 초래하지 않도록 점검함.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신동물위생전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도축장에서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논의에 착수함.

○ 독일, 패스트푸드시장에 부는 바이오 열풍

- 독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요 패스트푸드 제품은 맥도널드, 버거킹, KFC를 비롯해 터키식 되너(Doener), 피자 등임. 2006년 기준 독일 패스트푸드 시장은 47억 유로 매출을 기록했으나 제품 품질 면에서는 관심도가 미약했음.
- 지난 10월말 쾰른에서 1호점을 오픈한 Pick-A-Pea의 경우, 라인란트 신규기업협회(NUK: Neues Unternehmertum Rheinland) 에서 주관한 2008년 창업경연대회에서 일등을 차지한 바 있음. 이 브랜드의 경우 가격대비 버거킹 및 맥도널드보다 비싼 편에 속하나, 구성 메뉴에 있어 소비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맛과 품질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2008.11월 초 함부르크에서 런칭된 WakuWaku의 경우 주식재료는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제품으로 영업점 내 인테리어 및 점원들의 유니폼 역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제작했고, 친환경전력을 공급받아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고 있음.

3. 아메리카

○ 미국, 농무부 원산지표시 의무제 세부소양 최종 확정발표

- 미국 농무부는 지난 12일에 2002년과 2008년 농업법 (Farm Bill)이 요구하는 원산지표시 의무제(Mandatory 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에 대한 최종적인 세부 규정조항을 발표함. 전체적인 원문은 1.15일 연방정부 관보로 발간되며 농산물(특히 신선 혹은 냉동 채소와 과일), 육류 그리고 견과류가 이번 COOL 법안 안에 포함되고 있음. .
- USDA는 이번 제도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종업원 교육, 자동 추적시스템 개발, 소매업자 설문 조사 등에 쓰일 펀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번 에 확정된 COOL 법안은 2002년에 상정되었으나 5년동안 시행을 미루어 오다 작년 4월에 이슈화된 토마토 살모넬라 감염 파동으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기인하였으며 작년 9.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미국, 물 부족으로 1조 달러 시장 생긴다

- 최근 원유 부족 사태보다 물 부족 사태를 먼저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세계인구 증가에 따른 식수와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가 부족하며 인구증가율이 물 공급률을 넘어서고 물 수요는 21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있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지가 늘고 있



으며 평균 온도가 높아지면서 땅, 호수, 강 등이 메말라가는 현상이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며 이미 심각한 수위를 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전세계가 2030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해 정수시설과 제조 시설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 수요량을 공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함. 이미 식수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알제리와 이스라엘 등 10여 국가는 타국에서 물을 수입하고 있음. 물 부족사태로 식품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경제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됨. 물 부족사태는 이미 미국 내 학계의 화두로 올라섰으며, 각종 전문잡지와 신문 상의 기사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음.

#### ○ 미국, 농업법(Lacey Act) 수정안에 따른 세관 신고 구체안 공개

- 미 농무부는 올 4월 시행되는 농업법 수정안에 따른 식물, 나무 성분을 포함한 제품 중 세관신고 의무 제품 리스트를 공개함. 당초 농무부는 1.23일자 관보(Federal Register)에 본 공지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백악관 리뷰를 위해 게재를 연기함. 따라서 본 발표는 최종안은 아니나 가장 최근 구체사항이 안내되어 있어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바임.
- 2008년 농업법에 따른 레이시법 수정안 개요 : ① 미국의 2008년 농업법(The Farm Bill)에 포함된 레이시법(Lacey Act) 수정안에 따라, '중이제품은 물론, 모든 식물 또는 나무제품'의 수입통관시 제품에 사용된 식물종과 원산지에 대한 세관 서면신고서 작성이 요구됨. ② 지난 해 5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농업법에는 천연식물종 보존법령인 레이시법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수정안은 식물, 나무제품의 세관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③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Phase I에 분류되는 제품부터 세관신고 시행하되, 2008.12.15일~2009.4.1일 동안 '계도기간(Educational Period)'을 갖은 후 4월부터 의무화할 것임.

#### ○ 미국, 통상정책 강화로 식품판매가 사용 주의 요망

- 미국 정부가 올해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제품에 대해 견제중심의 통상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대미 식품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됨. 올해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연방법 관보에 발표한 Importer Security Filing (수입안전보고)를 1.26일부터 실시하게 될 예정으로 수입업체와 선적회사는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요구사항을 국토안보부에 알려야 함. 수입자의 경우 판매자, 구매자, 수입업체 번호, 인수업체번호, 생산업체, 출발지, 원산지 그리고 미국 HS CODE 번호로 사전에 통보되어야 하며 선적회사는 컨테이너 작업장소와 혼재업자를 알려야 함.

- 통관업체의 한 관계자는 얼마 전 미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 수입식품이 색소나 첨가제 문제로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에서는 허용되는 치자황색소나 홍화황색소가 미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차질 없는 세관 통과를 위해 수입규제의 해당여부와 범위 등의 정확한 파악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함. 식품첨가제와 색소사용에 대한 규제는 최근 들어 중국산 제품의 멜라민 사건으로 인해 전반적인 유제품에 수입을 제한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짐.

### ○ 캐나다, 신선농산물 수입 규정 강화

- 캐나다 신선농산물 마케팅협회(Canada Produce Marketing Association) 관계자들은 캐나다로 수출하는 신선농산물에 대한 식품위생 검사가 2009년부터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힘. 지난 20일, 30여 개의 캘리포니아 신선농산물 업체가 모인 회의에서 CPMA 관계자들은 라벨링, 식품위생 그리고 추적시스템에 관해 변경된 규정을 설명함.
- 새로 변경되는 규정들은 다음과 같음.
  - ① 1.1일부터 캐나다로 수출되는 포장된 과일, 야채 제품은 반드시 성분, 실제 내용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
  - ② 퀘벡주로 가는 농산물은 반드시 불어로 라벨링 표시를 해야 함.
  - ③ 수입 라벨링을 포함한 유기농 제품에 대한 새 규정은 6.30일에 발표할 것임.
  - ④ 캐나다인 식품 위생 검사관의 국경지대 검색이 강화됨.
  - ⑤ 캐나다 소매상인들은 더 많은 제3자 보증업체를 가진 수입업체를 원함.

자료작성: 김연수

# 세계농업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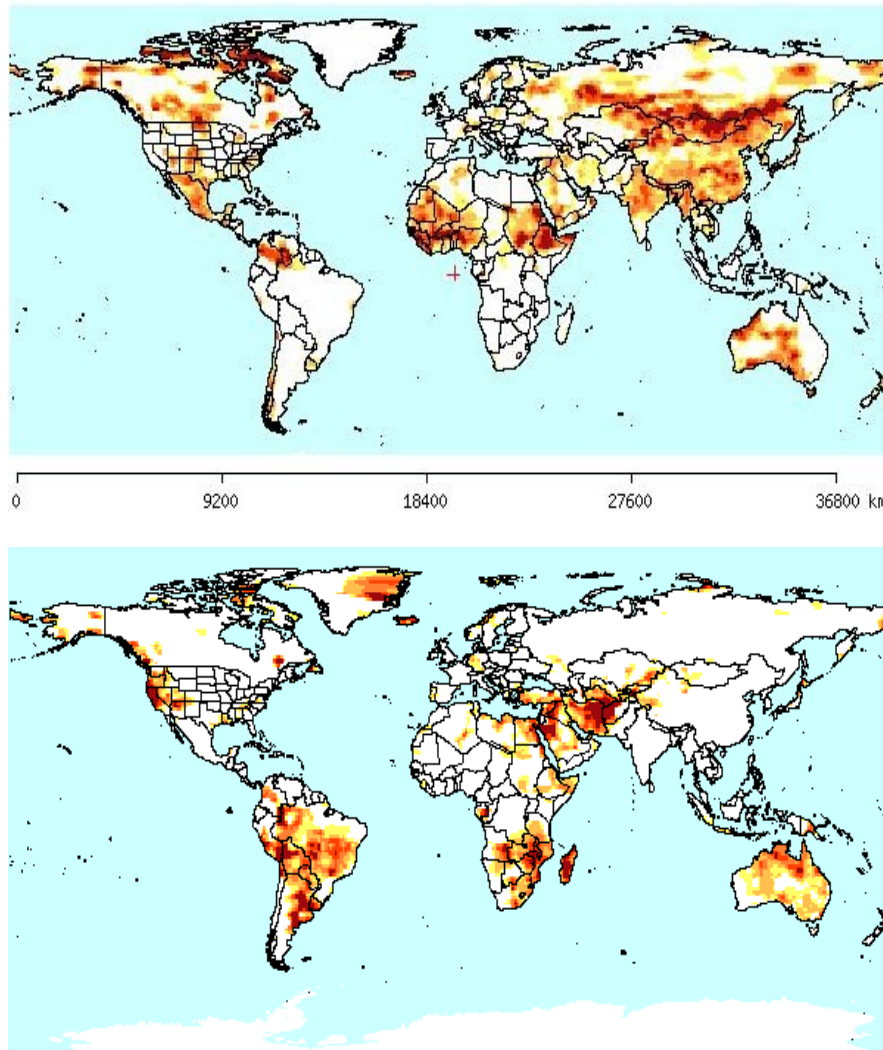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국가별 영양결핍 통계

##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이번 달에는 세계가뭄모니터(Global Drought Monitor)의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의 세계 가뭄 동향을 담았다. 극단적 기후변화 현상 중 하나로 분류되는 가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농업 생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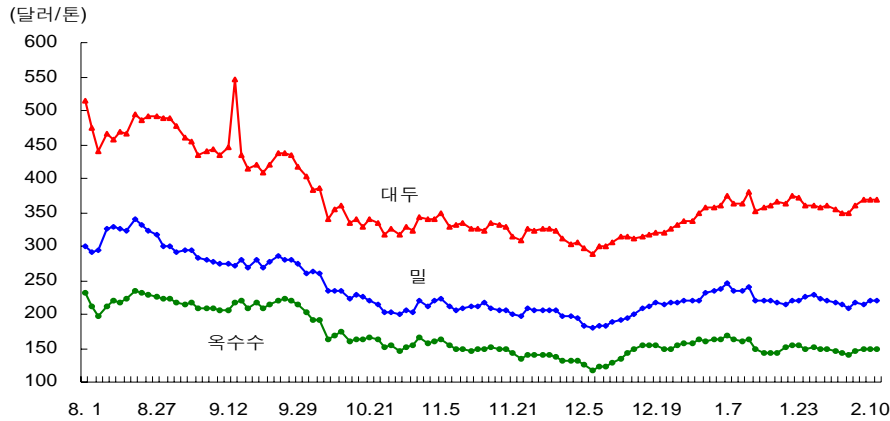
그림 1 세계 가뭄 현황 (위: 2008.6월, 아래: 2009.2월)



주: 색이 진할수록 가뭄이 심각한 것을 의미함.  
 자료: Global Drought Monitor(<http://drought.mssl.ucl.ac.uk>)

2008년 중반까지 가뭃은 중국, 아프리카, 호주, 중미 등에서 심각하였으나, 최근에는 남미, 중동, 남아프리카, 호주 등에서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2월 현재 가뭃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1억 명으로 추산된다.

그림 2 국제 곡물가격 현황



주: 2008년 8월~2009년 2월 11일까지 자료임.  
 자료: 시카고선물거래소

일각에서는 가뭃으로 인한 호주, 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와 중국의 곡물 수요 증가가 맞물려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2008년 중반 이후 하락하던 국제 곡물가격이 12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중국의 풍작과 곡물 생산량 등을 고려할 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작성자: 유찬희

## 국가별 영양결핍 통계

표 1 국가별 영양결핍 통계

: 영양부족 상태의 확산, 세계식량정상화회의로의 진전, 개발도상국의 새천년개발목표(MDG) 타킷<sup>[1][2][3]</sup>

세계 지역별/소지역별/국가별	전체인구	영양결핍인수			Progress in number towards WFS target=0.5*
	Total population	Number of people undernourished			
	2003 - 05	1990 - 92	1995 - 97	2003 - 05	
	백만	백만			
<b>세계</b>	6406.0	841.9	831.8	848.0	1.0
<b>선진국</b>	1264.9	19.1	21.4	15.8	0.8
<b>개발도상국</b>	5141.0	822.8	810.4	832.2	1.0
<b>아시아태평양지역</b>	3478.6	582.4	535.0	541.9	0.9
<b>동아시아</b>	1386.1	183.5	152.0	131.8	0.7
중국 [2]	1312.4	178.0	143.7	122.7	0.7
북한[4]	23.5	4.2	6.7	7.6	1.8
몽골[4]	2.6	0.7	1.0	0.8	1.1
한국 [1]	47.7	ns	ns	ns	na
<b>동남아시아</b>	544.5	105.6	88.6	86.9	0.8
캄보디아 [4]	13.7	3.8	4.8	3.6	0.9
인도네시아 [3]	223.2	34.5	26.7	37.1	1.1
라오스[3]	5.6	1.1	1.3	1.1	1.0
말레이시아[1]	25.2	ns	ns	ns	na
미얀마 [3]	47.6	18.1	14.8	8.8	0.5
필리핀 [3]	82.9	13.3	12.8	13.3	1.0
태국 [3]	62.6	15.7	12.3	10.9	0.7
베트남 [3]	83.8	18.7	15.6	11.5	0.6
<b>남아시아</b>	1468.4	282.5	284.8	313.6	1.1
방글라데시 [4]	150.5	41.6	51.4	40.1	1.0
인도네시아 [4]	1117.0	206.6	199.9	230.5	1.1
네팔 [3]	26.6	4.0	5.3	4.0	1.0
파키스탄 [4]	155.4	25.7	23.7	35.0	1.4
스리랑카 [4]	19.0	4.6	4.4	4.0	0.9
<b>중앙아시아</b>	57.7	4.0	4.7	6.5	1.6
카자흐스탄 [1]	15.1	ns	ns	ns	na
키르기스스탄 [1]	5.2	0.8	0.6	ns	na
타지키스탄 [4]	6.5	1.8	2.4	2.2	1.2
투르크메니스탄 [2]	4.8	0.3	0.4	0.3	0.8
우즈베키스탄 [3]	26.2	1.0	1.1	3.6	3.7
<b>서아시아</b>	15.9	6.1	4.4	2.2	0.4
아르메니아 [4]	3.0	1.6	1.1	0.6	0.4
아제르바이잔 [3]	8.3	2.0	2.1	1.0	0.5
그루지야 [3]	4.5	2.5	1.2	0.6	0.2

표 1 국가별 영양결핍 통계

: 영양부족 상태의 확산, 세계식량정상화회의로의 진전, 개발도상국의 새천년개발목표(MDG) 타킷<sup>1)2)3)</sup>

전체 인구 중 영양결핍 비중 Proportion of undernourished in total population			prevalence towards MDG target = 0.5**	WORLD Region/subregion/country (undernourishment category)
1990 - 92	1995 - 97	2003 - 05		
%				
16	14	13	0.8	World
-	-	-	na	Developed countries
20	18	16	0.8	Developing world
20	17	16	0.8	Asia And The Pacific***
15	12	10	0.6	East Asia
15	12	9	0.6	China [2]
21	31	32	1.6	Dem. People's Rep. of Korea [4]
30	40	29	1.0	Mongolia [4]
-	-	-	na	Republic of Korea [1]
24	18	16	0.7	Southeast Asia
38	41	26	0.7	Cambodia [4]
19	13	17	0.9	Indonesia [3]
27	26	19	0.7	Lao People' Dem. Rep. [3]
-	-	-	na	Malaysia [1]
44	34	19	0.4	Myanmar [3]
21	18	16	0.8	Philippines [3]
29	21	17	0.6	Thailand [3]
28	21	14	0.5	Viet Nam [3]
25	22	21	0.9	South Asia
36	40	27	0.7	Bangladesh [4]
24	21	21	0.9	India [4]
21	24	15	0.7	Nepal [3]
22	18	23	1.0	Pakistan [4]
27	24	21	0.8	Sri Lanka [4]
8	9	11	1.4	Central Asia
-	-	-	na	Kazakhstan [1]
17	13	-	na	Kyrgyzstan [1]
34	42	34	1.0	Tajikistan [4]
9	9	6	0.6	Turkmenistan [2]
5	5	14	3.0	Uzbekistan [3]
38	27	14	0.4	Western Asia
46	34	21	0.5	Armenia [4]
27	27	12	0.4	Azerbaijan [3]
47	24	13	0.3	Georgia [3]



세계 지역별/소지역별/국가별	전체인구	영양결핍인수			Progress in number towards WFS target=0.5*
	Total population	Number of people undernourished			
	2003 - 05	1990 - 92	1995 - 97	2003 - 05	
	백만	백만			
<b>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지역</b>	544.2	52.6	51.8	45.2	0.9
<b>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b>	141.9	9.3	10.2	8.8	0.9
코스타리카 [1]	4.3	ns	ns	ns	na
엘살바도르 [3]	6.6	0.5	0.6	0.6	1.3
과테말라 [3]	12.4	1.3	1.7	2.0	1.6
온두라스 [3]	6.7	1.0	0.9	0.8	0.8
멕시코 [1]	103.4	ns	4.3	ns	na
니카라과 [4]	5.4	2.2	1.9	1.2	0.5
파나마 [3]	3.2	0.4	0.6	0.5	1.2
<b>카리브해</b>	33.7	7.5	8.6	7.6	1.0
쿠바 [1]	11.2	0.6	1.5	ns	na
도미니카공화국 [4]	9.3	2.0	2.0	2.0	1.0
아이티 [5]	9.2	4.5	4.8	5.3	1.2
자메이카 [2]	2.7	0.3	0.2	0.1	0.5
트리니다드토바고 [3]	1.3	0.1	0.2	0.1	1.0
<b>남아메리카</b>	368.6	35.8	33.0	28.8	0.8
아르헨티나 [1]	38.4	ns	ns	ns	na
볼리비아 [4]	9.0	1.6	1.5	2.0	1.2
브라질 [2]	184.3	15.8	15.6	11.7	0.7
칠레 [1]	16.1	0.9	ns	ns	na
콜롬비아 [3]	44.3	5.2	4.2	4.3	0.8
에콰도르 [3]	12.9	2.5	2.0	1.9	0.8
가이아나 [2]	0.7	0.1	0.1	0.0	0.3
파라과이 [3]	5.8	0.7	0.5	0.7	1.0
페루 [3]	27.0	6.1	4.9	3.9	0.6
수리남 [2]	0.4	0.0	0.0	0.0	0.7
우루과이 [1]	3.3	0.2	ns	ns	na
베네수엘라 [3]	26.3	2.1	3.1	3.2	1.6

전체인구 중 영양결핍 비중 Proportion of undernourished in total population			prevalence towards MDG target=0.5**	WORLD Region/subregion/country (undernourishment category)
1990 - 92	1995 - 97	2003 - 05		
%				
12	11	8	0.7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8	8	6	0.8	North and Central America
-	-	-	na	Costa Rica [1]
9	11	10	1.1	El Salvador [3]
14	17	16	1.2	Guatemala [3]
19	16	12	0.6	Honduras [3]
-	5	-	na	Mexico [1]
52	40	22	0.4	Nicaragua [4]
18	20	17	0.9	Panama [3]
26	28	23	0.9	The Caribbean
5	14	-	na	Cuba [1]
27	24	21	0.8	Dominican Republic [4]
63	60	58	0.9	Haiti [5]
11	7	5	0.4	Jamaica [2]
11	13	10	0.9	Trinidad and Tobago [3]
12	10	8	0.7	South America
-	-	-	na	Argentina [1]
24	20	22	0.9	Bolivia [4]
10	10	6	0.6	Brazil [2]
7	-	-	na	Chile [1]
15	11	10	0.7	Colombia [3]
24	17	15	0.6	Ecuador [3]
18	10	6	0.3	Guyana [2]
16	11	11	0.7	Paraguay [3]
28	20	15	0.5	Peru [3]
11	8	7	0.6	Suriname [2]
5	-	-	na	Uruguay [1]
10	14	12	1.2	Venezuela (Bolivarian Rep. of) [3]

세계 지역별/소지역별/국가별	전체인구	영양결핍인수			Progress in number towards WFS target=0.5*
	Total population	Number of people undernourished			
	2003 - 05	1990 - 92	1995 - 97	2003 - 05	
	백만	백만			
<b>중동, 북아프리카지역***</b>	420.0	19.1	29.6	33.0	1.7
<b>중동</b>	270.1	15.0	25.3	28.4	1.9
이란 [1]	68.7	ns	ns	ns	na
요르단 [1]	5.4	ns	0.2	ns	na
쿠웨이트 [1]	2.6	0.4	0.1	ns	na
레바논 [1]	4.0	ns	ns	ns	na
사우디아라비아 [1]	23.0	ns	ns	ns	na
시리아 [1]	18.4	ns	ns	ns	na
터키 [1]	72.0	ns	ns	ns	na
아랍에미리트 [1]	3.9	ns	ns	ns	na
예멘 [4]	20.5	3.8	5.0	6.5	1.7
<b>북아프리카</b>	149.9	4.0	4.3	4.6	1.2
알제리 [1]	32.4	ns	1.5	ns	na
이집트 [1]	71.6	ns	ns	ns	na
리비아 [1]	5.8	ns	ns	ns	na
모로코 [1]	30.2	1.2	1.4	ns	na
튀니지 [1]	10.0	ns	ns	ns	na
<b>사하라이남지역</b>	698.3	168.8	194.0	212.1	1.3
<b>중앙아프리카</b>	93.1	22.0	38.4	53.3	2.4
카메룬 [4]	17.4	4.3	5.1	4.0	0.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5]	4.1	1.4	1.8	1.8	1.2
차드 [5]	9.8	3.7	3.8	3.8	1.0
콩고[4]	3.5	1.0	1.2	0.8	0.8
콩고민주공화국	56.9	11.4	26.5	43.0	3.8
가봉 [1]	1.3	0.0	ns	ns	na
<b>동아프리카</b>	242.4	77.1	86.1	86.0	1.1
부룬디 [5]	7.6	2.6	3.6	4.8	1.9
에리트레아****[5]	4.4	2.1	2.1	3.0	1.4
에티오피아****[5]	77.0	37.4	39.3	35.2	0.9
케냐 [4]	34.7	8.0	8.4	11.0	1.4
르완다 [5]	9.1	3.2	3.3	3.6	1.2
수단[4]	36.2	8.3	7.2	7.4	0.9
우간다 [3]	28.0	3.6	5.1	4.1	1.1
탄자니아[5]	37.5	7.5	12.7	13.0	1.7

전체인구 중 영양결핍 비중 Proportion of undernourished in total population			prevalence towards MDG target=0.5**	WORLD Region/subregion/country (undernourishment category)
1990 - 92	1995 - 97	2003 - 05		
%				
6	8	8	1.3	<b>Near East And North Africa***</b>
7	11	11	1.4	<b>Near East</b>
-	-	-	na	Iran (Islamic Republic of) [1]
-	5	-	na	Jordan [1]
20	5	-	na	Kuwait [1]
-	-	-	na	Lebanon [1]
-	-	-	na	Saudi Arabia [1]
-	-	-	na	Syrian Arab Republic [1]
-	-	-	na	Turkey [1]
-	-	-	na	United Arab Emirates [1]
30	31	32	1.1	Yemen [4]
-	-	-	na	<b>North Africa</b>
-	5	-	na	Algeria [1]
-	-	-	na	Egypt [1]
-	-	-	na	Libyan Arab Jamahiriya [1]
5	5	-	na	Morocco [1]
-	-	-	na	Tunisia [1]
34	34	30	0.9	<b>Sub-Saharan Africa***</b>
34	51	57	1.7	<b>Central Africa</b>
34	35	23	0.7	Cameroon [4]
47	50	43	0.9	Central African Republic [5]
59	51	39	0.7	Chad [5]
40	43	22	0.5	Congo [4]
29	57	76	2.6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5	-	-	na	Gabon [1]
45	44	35	0.8	<b>East Africa</b>
44	57	63	1.4	Burundi [5]
67	64	68	1.0	Eritrea****[5]
71	63	46	0.6	Ethiopia****[5]
33	30	32	1.0	Kenya [4]
45	56	40	0.9	Rwanda [5]
31	24	21	0.7	Sudan [4]
19	23	15	0.8	Uganda [3]
28	41	35	1.2	United Republic of Tanzania [5]

세계 지역별/소지역별/국가별	전체인구	영양결핍인수			Progress in number towards WFS target=0.5*
	Total population	Number of people undernourished			
	2003 - 05	1990 - 92	1995 - 97	2003 - 05	
	백만	백만			
<b>남아프리카</b>	99.2	32.4	35.8	36.8	1.1
앙골라 [5]	15.6	7.2	7.3	7.1	1.0
보츠와나 [4]	1.8	0.3	0.4	0.5	1.7
레소토 [3]	2.0	0.2	0.2	0.3	1.2
마다가스카르 [5]	18.1	3.9	5.4	6.6	1.7
말라위 [4]	12.9	4.3	3.7	3.8	0.9
모리셔스 [2]	1.2	0.1	0.1	0.1	1.0
모잠비크 [5]	20.1	8.2	8.6	7.5	0.9
나미비아 [3]	2.0	0.4	0.5	0.4	0.9
스와질란드 [3]	1.1	0.1	0.2	0.2	1.8
잠비아 [5]	11.3	3.3	3.9	5.1	1.5
짐바브웨 [5]	13.0	4.3	5.5	5.2	1.2
<b>서아프리카</b>	263.7	37.3	33.8	36.0	1.0
베냉 [3]	8.2	1.5	1.7	1.6	1.1
부르키나파소 [3]	13.5	1.3	1.3	1.3	1.0
코트디부아르공화국 [3]	18.3	2.0	2.4	2.6	1.3
감비아 [4]	1.6	0.2	0.4	0.5	2.3
가나 [2]	22.1	5.4	3.0	1.9	0.3
기니 [3]	8.8	1.2	1.3	1.5	1.3
라이베리아[5]	3.4	0.6	0.9	1.3	2.2
말리 [3]	11.3	1.1	1.3	1.2	1.1
모리타니아 [2]	2.9	0.2	0.2	0.2	1.2
니제르 [4]	12.8	3.1	3.8	3.7	1.2
나이지리아 [2]	138.0	14.7	10.8	12.5	0.8
세네갈 [4]	11.5	2.3	3.0	3.0	1.3
시에라리온 [5]	5.4	1.9	1.8	2.5	1.3
토고 [5]	6.1	1.8	1.8	2.3	1.2

- 주: 1) 세계식량정상회담의 목표는 2015년 영양결핍인구 수를 1990-1992년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2) 새천년개발목표의 목적은 2015년까지 기아로 고생하는 사람(영양결핍인구)의 비중을 1990년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3) 국가별로 발표된 최신자료는 2003-2005년 추정치이고, 전망기준(baseline)은 1990-1992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1990-1992년 자료가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1993-1995년 자료를 기초로 추정하였다.

주의사항: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최신자료 및 과거 통계자료를 갱신한다. UN의 인구 자료도 정기적으로 갱신되거나 수정된다. FAO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할 때 다른 해에 발간된 보고서와 비교를 할 경우 혼선을 빚을 수 있다(연차별로 통계치가 다를 수 있다).

국가 이름 뒤에 붙은 숫자들은 영양결핍 수준을 범주화한 것으로, 2003~2005년 영양결핍인구 비중을 기준으로 하였다.

- [1] 영양결핍인구 비중 5% 미만      [2] 영양결핍인구 비중 5~9%      [3] 영양결핍인구 비중 10~19%  
 [4] 영양결핍인구 비중 20~34%      [5] 영양결핍인구 비중 35% 이상

\* 제시된 숫자는 1990-1992년 대비 2003~2005년 영양결핍인구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값이 1.0보다 클 경우 과거보다 영양결핍인구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 제시된 숫자는 1990-1992년 대비 2003~2005년 전체인구 중 영양결핍인구 비중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값이 1.0보다 크면 과거보다 영양결핍인구 비중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전체인구 중 영양결핍 비중 Proportion of undernourished in total population			prevalence towards MDG target=0.5**	WORLD Region/subregion/country (undernourishment category)
1990 - 92	1995 - 97	2003 - 05		
%				
45	43	37	0.8	<b>Southern Africa</b>
66	58	46	0.7	Angola [5]
20	24	26	1.3	Botswana [4]
15	13	15	1.0	Lesotho [3]
32	37	37	1.2	Madagascar [5]
45	36	29	0.7	Malawi [4]
7	6	6	0.9	Mauritius [2]
59	52	38	0.6	Mozambique [5]
29	29	19	0.7	Namibia [3]
12	20	18	1.5	Swaziland [3]
40	41	45	1.1	Zambia [5]
40	46	40	1.0	Zimbabwe [5]
20	16	14	0.7	<b>West Africa</b>
28	26	19	0.7	Benin [3]
14	12	10	0.7	Burkina Faso [3]
15	16	14	0.9	Côte d'Ivoire [3]
20	31	30	1.5	Gambia [4]
34	16	9	0.3	Ghana [2]
19	18	17	0.9	Guinea [3]
30	39	40	1.3	Liberia [5]
14	15	11	0.8	Mali [3]
10	8	8	0.8	Mauritania [2]
38	40	29	0.7	Niger [4]
15	10	9	0.6	Nigeria [2]
28	32	26	0.9	Senegal [4]
45	43	47	1.0	Sierra Leone [5]
45	39	37	0.8	Togo [5]

\*\*\*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파푸아 뉴기니(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말리아(동아프리카)의 잠정치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해당 국가가 속한 지역의 전체 통계에는 잠정치를 포함시켰다. 선진국의 잠정치는 세계 영양결핍수준 추정에 반영되었다.

\*\*\*\*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는 1990~1992년에 분리된 국가가 아니었으나, 전 에티오피아 민주공화국의 영양결핍인구 수와 비중 추정치만을 지역 통계에 포함시켰다.

KEY 기호

-: 전체 인구 중 영양결핍인구 비중 5% 미만

na: 적용 불가

0.0: 0 또는 단위 기준으로 0.5 미만임.

ns: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원자료

Total population: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0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6 Revision, New York, USA.

Undernourishment: FAO estimates.

참고자료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08, FAO.

M45-102 세계농업 제102호 (2009. 2)

---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9년 2월

발 행 2009년 2월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t@chol.com](mailto:dongyt@chol.com)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